

불어권 퀘벡의 문화적 독창성에 관한 연구(Ⅱ)

유평근·이 환

퀘벡 문학의 중요한 특징은 정체성의 추구란 측면에서 파악되며, 때문에 퀘벡의 문학사는 정체성 획득의 역사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아메리카에 이식된 프랑스인으로 시작하여, 점차 불어를 사용하는 아메리카인으로 변모되어 퀘벡인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간 퀘벡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퀘벡의 문학은 퀘벡인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표현하고자 하고, 그 점을 말하고 싶어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실천해 온 퀘벡인들의 노력이 문학작품 속에 밀도 있게 형상화되어 온 것이다.

민족주의적 색채를 떼과 동시에 프랑스 문학과 어느 정도 변별성을 갖기 시작하는 불어권 카나다 문학이 출현하게 되는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이다. 그러나 19세기 불어권 카나다 문학은 구체제에 대한 항수, 누벨 프랑스 시대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과거 지향적인 보수주의와 민족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국가와 민족의 필요에 따라 문학을 정의하고자 하는 애국주의적인 움직임의 길등 속에 놓여 있었다.

시에 있어서 프랑스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크레마지가 활동한 19세기 중엽 이후부터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시인들은 분열적인 의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인들이 정신적으로는 프랑스의 문화를 예찬하고 담습하면서도, 육체적으로는 프랑스가 아닌 아메리카, 즉 카나다에 입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의 불어권 카나다 시가 시대착오적인 자아 도취와 자아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20세기 초의 불어권 카나다 시는 19세기의 도취 및 분열 상태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불어권 카나다 문학>이 향후 <퀘벡 문학>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지는 토대를 공고히 마련하는 시기이다. 비록 위의 상반된 가치와 질서의 개념이 혼재하고 있기는 했지만, 이 시기 몇몇 시인들의 노력과 열정은 이미 확고한 자기 인식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20세기 초 문학의 흐름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에 답하기 위해 ‘자기 소외’라는 테마를 시에 도입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명예를 전 시인이 바로 에밀 벨리강이다. 1930년을 기점으로 이후의 불어권 카나다 문학은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모든 가치가 전도되었고, 기존의 질서에 반발하고 반항으로 일관하던 시기에 행해진 새로운 모색을 위한 작업은 일정한 틀을 갖추지 못한 채 개인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 시기의 시인들의 작업은 여러 방향으로 자유롭게 분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의 여러 경향을 대체적으로 나마 포용할 수 있는 말은 아마도 ‘자유’라는 용어일 것이다. ‘자유’라는 바람을 최초로 불어권 카나다 문학에 몰고 온 시인들로는 알랭 그랑브와, 리나라스니에, 안느 에베르, 미셸 라롱드를 들 수 있다.

한편 불어권 카나다에서 초기 소설 작품들이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이며, 프랑스를 모방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당시의 소설들은 대지와 자연의 고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교화적 성격의 것으로, 향토소설로 굳어지게 된다. 퀘벡의 작가들이 ‘언어의 질’의 차원에서 카나다의 불어가 프랑스의 불어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자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1960년부터 66년 사이에 진행된 ‘조용한 혁명’은 국민의 상상력과 민족적 자부심을 전자시키면서 자신들과 그들이 속한 사회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정의하게 하였다. 이 시기의 퀘벡 소설들에서는, 집단적 소외 의식이 심화되고 해방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 시기의 퀘벡 소설은 타자의 위협적 출현과 사회-경제적 지배를 확인하는 단계에서부터, 전통적 이데올로기를 문제삼아 가치의 위기를 내면화시키는 단계를 거치고는, 불어권 카나다인의 상황을 식민주의와의 관련 하에서 설명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을 비판하기에 이른다. 이 마지막 단계의 소설을 흔히 비판 소설이라 한다. 이 소설은 역사의 실체를 확인하고 국가의 부재를 통탄하며 그것을 식민지적 상황 탓으로 돌리고 있다. 비판 소설은 부정적 차원에서 소외를 극복하고, 긍정적 차원에서 해방을 호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하여 이 소설들은 마침내 프랑스계 카나다인의 죽음을 선언하고 퀘벡인의 탄생을 촉구하게 된다.

결국 퀘벡인들이 추구해온 탈식민화 과정은 ‘새로운 인간의 진정한 탄생’이라는 정체성 획득의 과정과 일치하면서, 억압적인 낡은 세계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균원의 낙원 같은 세계를 건설하려는 집단적 열망의 표현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III. 정체성 탐구의 도구로서의 문학

한 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명하려는 시도, 그 사회에 고유한 동질성을 부여하려는 노력, 자신의 역사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이를 기억하도록 촉구하는 작업 등은 문학을 통해 깊이 있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 집단의 문학은 그 집단의 문화 수준을 반영하는 충실한 거울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은 아직까지도 보편적인 유효성을 잃지 않는 진술로서 받아들여진다. 문학작품 혹은 문학 현상과 사회간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문학작품의 형식과 내용의 충위에서 사회적 의미를 읽어내려 하는 문학 사회학자들이나, 포괄적 의미에서의 문학 현상을 연구하는 최근의 문학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문학은 집단의 문화를 예민하게 보여주는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퀘벡의 문학적 소산들을 하나의 관점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는 오늘의 퀘벡과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믿는다.

우리는 퀘벡 문학의 중요한 특징을 정체성(Identité)의 추구란 측면에서 파악하고, 퀘벡의 문학사를 정체성 획득의 역사로 이해하고자 한다. 정체성이란 개념은, 개인 혹은 동일한 문화나 세계관을 공유한 집단을 개별화시키는 통일성의 원리로서 규정된다. 신분증이나 사진이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식이라면, 동일

한 공동체에 속하는 성원들의 유사성, 특히 동일한 역사적 경험과 집단적 열망 등은 그 집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개인의 차원에서건 집단의 차원에서건 정체성은 항상 타자를 상정해서 성립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그것은 타자로부터 나를 대립시키는 구별의 원리라 할 수 있다. 그 구별의 요소들은 구별의 행위가 발생하는 역사적 시점, 그 시점에 대한 개인 혹은 집단의 이해 정도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점들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정체성은 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나 성원들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 가는 가변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사회집단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고, 변화의 시기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을 규정짓는다. 이러한 행위는,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자신들의 집단적 꿈과 열망을 대변하는 가치들의 체계를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오늘의 퀘벡인들이 자신들을 카나다인이나 프랑스계 카나다인이 아니라 퀘벡인으로 인식하고 퀘벡인으로서 발언하기까지에는 많은 역사적 우여곡절이 있었고 개인적, 집단적 투쟁이 필요했다. 퀘벡의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규정지어 온 주된 사회적 요소로는, 첫째 그들이 아메리카에 이주한 프랑스인들의 후예로서 불어와 프랑스 문화를 공유해 왔다는 점이고, 둘째 그들은 영국과 프랑스 간의 식민지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영국계 카나다인의 식민 정치에 시달려 왔다는 점이다. 1763년 파리 조약이 체결된 후 1855년 까지, 프랑스계 카나다인들은 조국 프랑스로부터 단절된 상태에서 영국계 카나다인들의 언어적 문화적 동화정책을 견디어 왔다. 더 이상 프랑스 사람이 아니면서, 그렇다고 영어 사용자들에 의해서도 궤멸되기를 원치 않는 불어권이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집단적 투쟁이야말로 퀘벡의 역사를 관류하는 주된 흐름일 것이다. 프랑스 본토와 영어권으로부터 구별되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화적 자율성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삶의 전분야에 걸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프랑스에 대한 언어적, 문화적 피식민 의식과 영어권으로부터 가해지는 정치적, 경제적 식민 통치를 극복하는 과정이 퀘벡의 역사를 규정지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프랑스를 모방할 때도 조금씩 자신들의 문학을 특수화시켰고, 자신들의 특수성을 공고히 해 나갔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메리카에 이식된 프랑스인이었지만, 점차 불어를 사용하는 아메리카인이 되어 간다. 또한 퀘벡인들은 미국인이 아니라 불어를 쓰는 아메리카인으로서 프랑스인과도, 영국인과도, 영어권 카나다인들과도 다른 집단으로 형성되어 간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퀘벡의 문학은 퀘벡인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표현하고자 하고, 그 점을 말하고 싶어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실천해 온 퀘벡인들의 노력이 문학 작품 속에 밀도 있게 형상화되어 온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한 집단의 정체성의 의미는 가변적인 것이고, 그것은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는 집단의 열망이나 가치 체계 혹은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19세기 전체를 관류하고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퀘벡 사회를 이끌었던 지배 이데올로기는 카톨릭 교회의 정신에 입각한 이상적인 농촌 사회였다. 19세기의 퀘벡 문학은 프랑스 문학을 모방하는 단계였지만 퀘벡의 작가들이 모방한 것은 대혁명 이후 전위적인 사상의 세례를 받은 19세기 프랑스 작가들이 아니라, 라신, 고르네이유, 몰리에

로 같은 17세기 고전 작가들이었다. 그들은 프랑스에서의 산업화, 도시화가 초래한 문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아메리카의 대지와 고장을 찬양하고 현대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자신들의 운명을 감내하는 소박하고 선한 인간들을 작품 속에 형상화했다. 이들의 이러한 문학적 대응은 당시의 프랑스 문화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표현임과 아울러, 경제적인 면에서 점점 자신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기 시작한 영어권 카나다인들에 대한 소극적이고 도피적인 표현 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불어권 카나다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를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재평가하게 되면서, 개인적인 혹은 집단적인 정체성의 문제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심각한 반성의 분위기가 문학 작품의 영역에서는 물론 인문 사회학의 분야에서 폭넓게 확산되어 갔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떠맡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1960년의 ‘조용한 혁명(Révolution tranquille)’을 맞이하면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가히 문학적 혁명이라 평가할 만한 이러한 움직임의 의미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의되던 불어권 카나다인 le Canadien français란 개념이 새로운 인간 즉 퀘벡인 le Québécois란 개념으로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퀘벡인들에게 의식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던 ‘조용한 혁명’은 퀘벡 사회의 정체성 확보를 공고히 한 획기적인 기점이 되었다. ‘조용한 혁명’의 정신은 그 이후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퀘벡인들의 집단 의식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문학작품을 살펴봄으로써 퀘벡인들이 정체성을 추구하고 획득하며 내면화하는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시와 소설 장르를 중심으로 고찰하되 기술의 편의상 각 장르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 전개의 방법으로는 각 장르마다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퀘벡 문학 사상 대표적인 시인들과 소설가들이 선정될 것이며 그들의 주요 작품을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 검토할 것이다. 1930년을 구분점으로 하여 퀘벡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변화 양상을 작품 속에서 추출해 내고, 프랑스에 대한 퀘벡 작가들의 태도의 변화를 아울러 주목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은 포괄적으로, 프랑스 본토와 영어권에 대한 피식민의식을 극복하는 탈식민주의적 문학 대응이란 맥락에서 흡수, 조정될 것이다.

1. 19세기 이전까지의 퀘벡의 문학

‘누벨 프랑스’ 문학이라 명명되는 1534년부터 1763년까지의 문학은 <전-카나다 문학 Littérature pré-canadienne>¹이라 불리우는데, 이 시기의 문학과 프랑스의 문학을 비교해

¹ Edwin Hamblet, PH. D., *La Littérature Canadienne Francophone*, Hatier, p.12, 1987 ; 누벨 프랑스의 문학을 <前-카나다 문학>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시기 문학을 담당한 작가들이 모두 프랑스에서 건너온 사람들로서 스스로 카나다인이라는 의식이 없었으며, 카나다에 대한 애정도, 집착도 없이 이

보면 거의 변별점을 찾을 수 없다. 이 시기의 문학 작품은 자크 카르티에 Jacques Cartier, 사뮈엘 드 샹플랭 Samuel de Champlain 과 같은 탐험가, 폴 르 전느 신부 Père Paul Le Jeune, 프랑스와 자비에르 드 샤를로브와 신부 Père Francois Xavier de Charlevoix 등의 성직자들이 자신의 체험을 기술한 여행기와 탐험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작품들로서, 이들은 문학적인 완성도나 문제제기적인 내용보다는 오히려 연대기적인 보고서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시기의 작가들은 모두가 프랑스 태생으로 프랑스 고전주의 정신과 제주이트파의 교육 원리에 침윤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글을 쓴 것은 카나다 내에 프랑스의 문화를 전파하여 미개한 토착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민온 프랑스인들을 교육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고귀한 영혼과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지닌 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 문학의 전형적인 ‘교양인 honnête homme’과 동일하다. 그 이유는 어떤 작가도 자신이 프랑스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전히 프랑스를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런 상태에서 작품을 썼기 때문에 누벨 프랑스의 문학은 사상적, 정신적인 모든 면에서 프랑스 문학에 종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1763년 파리조약이 체결되어 카나다에서 프랑스의 지배가 끝나면서 카나다의 프랑스 문학은 19세기가 될 때까지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그 이유는 파리조약 이후 대부분의 지식인이 영국의 지배를 피해 본국인 프랑스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카나다에는 프랑스에 돌아가도 삶의 터전이 없는 기충민들만이 남았는데, 그들 대부분이 문맹자였고², 또한 정치적인 불안으로 인해 전쟁의 위협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기에 지리적으로 광대한 지역에 산개해 살아야 했다. 따라서 혹독한 기후 조건과 맞서 개척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들에게는 생존 자체가 중요한 관건이었기 때문에 집단적인 의식의 형성과 그 반영으로서의 문학은 불가능했다. 물론 구전이야기 및 꽁트와 상송, 그리고 훗날 상송에 활용을 준 무척 중요한 전설들이 있기는 했지만, 글로 쓰여진 문학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조건들이 점차 불어권 카나다인의 의식을 자극하고 그들을 하나의 울타리 속으로 결집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민족주의적 색채를 땜과 동시에 프랑스 문학과 어느 정도 변별성을 갖기 시작하는 불어권 카나다 문학이 출현하게 되는데³, 그에 대한 최초의 시도는

국정서를 표현하거나 여행기 등의 형태로 작품을 썼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벨 프랑스 시기의 문학은 육체와 정신의 뿌리를 프랑스에 둔 프랑스 문학이었지 카나다 문학은 아니었다.

2 카나다가 영국계에 의해 정복된 이후의 불어권 카나다의 사회 현상은 ‘새로운 중세’라 불릴 수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당시 불어권 카나다의 농촌지역들이 여전히 교권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는 점이고, 또 대다수의 농민 대중들에게서 보여지는 높은 문맹률 때문이다. 예를 들어 1827년 당시 총독인 달루지 Dalhousie에게 보내진 탄원서를 보면, 여기에 서명한 87,000명 가운데 78,000명이 단지 X자로만 서명했을 정도이다.

3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불어권 카나다 문학’이라는 말을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만 적용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의 문학은 ‘케베 문학’이라 지칭할 것이다. 그 이유는 케베인들이 자신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한 19세기 이후로, 불어권 카나다 문학의 정체성 찾

신문과 잡지에서 이루어졌다. 1778년 몽레알에서 등장한 『라 가제뜨 La Gazette』는 이런 카나다 문학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1806년의 신문 『카나다인 Le Canadien』은 『라 가제뜨』의 뒤를 이어 카나다에서의 불어 사용권옹호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게다가 프랑스와 자비에르 가르노 Francois-Xavier Garneau 는 『카나다 역사 Histoire du Canada』를 써서 불어권 카나다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도록 자극했다. 또한 1850년 경 카나다에서 불어 사용권이 회복되기에 이르렀고, 1852년에는 퀘벡에 최초의 대학인 라발 대학 Université Laval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프랑스 문학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던 19세기 불어권 카나다 문학은, 영국계 카나다 정부에 대한 반대, 정신적 고향인 프랑스에서 왕정을 없애버린 대혁명에 대한 반발⁴, 정신적 지주였던 카톨릭 교회의 영향⁵ 등을 기본적인 성격으로 간직하고 있었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19세기 불어권 카나다 문학은 전반적으로 보수주의의 색채를 띠게 되었다. 그 결과 불어권 카나다인의 자기 인식은 구체제에 대한 향수, 누벨 프랑스 시대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과거 지향성의 방향으로 이끌어져 있다. 이처럼 프랑스 문학의 영향이 갈수록 심화되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태동 단계에 있는 불어권 카나다 문학에 독자적인 방향을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었는데, 이 노력은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하나의 흐름은 낭만주의와 결합하여 과거에 있었던 민족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흐름은 국가와 민족의 필요에 따라 문학을 정의하고자 하는 애국주의적인 움직임이었다. 이런 흐름 아래, 작가들의 개성에 따라 문학이 대중을 교화시키는 종교적인 관심사로 표현되기도 하고 불어권 카나다의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특수성을 옹호하려는 지역주의로 표현되기도 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의 불어권 카나다 문학은 위에서 언급한 카나다 애국주의와 프랑스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게 되며, 불어권 카나다 문학이 현대화되기까지는 20세기 종업의 새로운 상황을 기다려야 했다.

기가 여러 양상으로 변모한 끝에 퀘벡의 단일한 문화현상으로 정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30년 이전까지 문학의 기술에서는 ‘불어권 카나다 문학’이란 용어를, 그 이후의 문학에 대해서는 ‘퀘벡 문학’이라 할 것이다.

4 Réjean Beaudoin, *Naissance d'une littérature*, Boréal, 1989, p.43-44. Philippe Masson은 〈Le Canada-Français et la providence〉에서 철학의 세기인 18세기를 논박하고 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어느 세기이나 권위에 대한 반동은 있었지만, 18세기의 정신은 신성한 권리인 적법한 권력을 개인적 이성에 근거를 둔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함으로써 사회구조의 모순된 원리에 빠져 들었다”는 것이다.

5 ibid., p.59. Pamphile Le May는 유럽에서의 이데올로기의 흐름이 〈Chrétienté médiévale → Absolutisme → Libéralisme〉으로 흐른 반면에, 불어권 카나다에서는 〈Libéralisme → Ultramontanism〉으로 계승되었다고 주장한다(이때 libéralisme 은 정치적 낭만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詩

(1) 19세기의 불어권 카나다 시

1830년, 카나다에서 19세기 최초의 불어 서적이 출판되었는데, 그 책의 저자는 미셸 비보 Michel Bibaud라는 사람이며, 그 책-시집의 제목은『묘비명, 풍자, 노래, 수수께끼 및 다른 시편들 Epiktres, satires, chansons, épigrammes et autres pièces de vers』이다. 그러나 우리는 저자나 내용인 시편들에가 아니라 책의 서두에서 저자가 내뱉은 한 구절, “나는 브왈로가 아니라면 샤플랭이 될 것이다”⁶라는 구절에 주목한다. 케베의 문학을 정체성 획득을 위한 집요한 투쟁의 역사로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위의 말이 상당한 의미를 갖는데, 그 이유는 이 구절이 바로 불어권 카나다의 19세기 전반의 문학현상을 드러내 보여주는 특징적인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셸 비보가 브왈로나 샤플랭이 되겠다고 말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낭만주의의 경향이 문학의 주된 흐름이 되어 있었으나, 불어권 카나다 작가들은 당시 프랑스 문학의 주도적인 흐름을 따르지 않았고, 화려한 광휘와 절제의 미학을 보여주었던 고전주의 문학에 넋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미셸 비보를 비롯해 다른 작가들이 프랑스 문학의 흐름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 불어권 카나다 문학의 독자성을 가꾸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미셸 비보의 단언이 드러내는 바는, 19세기 카나다 문학이 보수적이고 시대에 뒤진 프랑스를 단순하게 모방한 시대착오적인 문학이었을 뿐이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물론 카톨릭 교회의 영향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교회는 식민 초기부터 불어권 카나다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고, 교육을 담당하고 대중의 문맹퇴치에 기여한 바가 커있으므로 불어권 카나다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그 만큼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문학이 매우 교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이런 교회의 영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불어권 카나다의 문학이 이렇듯 과거의 프랑스 문학을 오랫 동안 끈질기게 붙잡고 있었던 것은 프랑스 대혁명이 불어권 카나다인들에게 불러 일으킨 공포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불어권 카나다인들은 대혁명 이후의 프랑스를 전위적이고 퇴폐적인 사상들이 집결한 <타락한 땅>으로 인식했고, 자신들을 조국에서 유기된 가련한 존재로 생각했다. 따라서 이들은 의식과 감정 속에서 서서히 조국 프랑스를 밀어내고, 카나다라는 광활한 미개척의 땅에서 스스로의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삶을 꾸려가야 한다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의식의 발전은 이후로 점점 구체성을 띠며 실현되어 가고, 19세기 중엽 이후에 이르면 각각의 시인들이 불어권 카나다 문학에서 프랑스 문학과는 다른 독자성을 얼마나 갖고 싶어 했는지를 그들의 시편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 일례로 불어권 카나다 문학에서 『민족시인 poète national』으로 상찬받는 옥타브 크레마지 Octave Crémazie⁷의 시를 보면, 19세기 중반 불어권 카나다 문학의 시인들에게서

6 Michel Tétu, 1991, 1, 25일의 강연 내용에서 발췌

내밀하게 썩트는 문학에 대한 자기 인식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당시의 불어권 카나다 시인들은 불어권 카나다 문학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희미하게나마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크레마지는 프랑스에 의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불어권 카나다인들에게 “아메리카의 토양 위에서 프랑스의 문화를 꽂피우라 épanouir sur le sol américain la civilisation française”(Hamblet, 1987 : 30)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카리용 Carillon⁸>이라는 시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 카리용, 너를 다시 보지만
 아! 축복받은 나날들 같지는 않구나
 그 날, 우린 달아나려 모여 있었고,
 성에선 트럼펫 소리가 울렸지.
 내 영혼이 죽고, 용기가 사라졌다고 느끼면,
 그때 네게로 돌아오리라.
 그 날 네 곁에 내 무덤을 찾아와
 내 깃발을 위해 이곳에 와서 죽으리라!

커다란 전투가 있던 날, 고귀한 몽카름⁹이여
 그대가 내 손에 건네준 이 깃발을,
 베르사이유 성문에서, 아! 옛날에
 헛되어 휘둘렸던 이 깃발을,
 너의 영광으로 불멸의 기억을 살아갈,
 하여 너의 기억을 간직한 무덤 속
 그 곳에 이 깃발을 두리
 내 깃발을 위해, 이곳에 와서 죽으리!

례비교(橋) 옆, 혼전 속에서 죽어간
 병사들이여, 행복하게나!
 숨을 거둘 때, 위로받는 걸 영혼들 보고 있었지
 영광으로써 죽음을 위무하는 걸,
 차가운 관 속에 잠든 그대들이여,

7 크레마지는 루이 프레谢트 Louis Fréchette, 알프레드 가르노 Alfred Garneau, 빙필 르 메이 Pamphile Le May 등과 함께 퀘벡 애국파 L'Ecole patriotique de Québec 을 조직해 활동한 민족주의 시인이며, 그의 시의 주제들은 조국 카나다에 대한 사랑, 프랑스에 대한 기억, 조상들의 언어와 종교에 대한 충성, 프랑스에 의해 배반당했다는 감정, 구체제에의 향수, 1760년의 패배의 고통 등이다.

8 프랑스인들이 누벨 프랑스에 세운 성채(요새). 1758년 몽카름은 전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카리용 성에서 영국군을 제압하고 중대한 승리를 따냈다.

9 프랑스 장군으로서 1712년 님므 Nimes 근처의 Candiac 성에서 근무하다 1756년 카나다의 프랑스군 사령관으로 부임해서 여러 개의 영국 요새를 탈취. 1756년 Oswego 성을, 1757년 William Henry 성을 탈환함. 그러나 1759년 퀘벡을 사수하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음.

내 최후의 숨결로 간청하노니, 그대들이여
깨어나게나, 나 깃발을 들고,
그대들 무덤가, 이곳에 와서 죽으리!(Crémazie, 1897 : 135-136)

인용된 시에서 ‘카리옹’은 누벨 프랑스 시대 제국주의 프랑스의 영광의 표상이었던 성채(城砦)이다. 따라서 시의 제목으로 선택된 ‘카리옹’은 불어권 카나다인들이 프랑스에 대해 간직하고 있는 향수와 애타는 그리움 등이 집적되어 있는 어휘이다. 그러나 시인의 눈에 비친 ‘카리옹’은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시대를 과거의 궤적 속에 묻어두고 명멸한 잔해에 불과하다. 따라서 ‘카리옹’을 시의 제목으로 선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견 시인은 그 궤적을 아쉬워하고 탄식하는 듯이 보인다. ‘축복받은 나날들’, ‘베르사이유 성문’, ‘너의 영광’, ‘불멸의 기억’ 등의 시구에서 볼 수 있는 시인의 고양된 감정 상태는 분명 과거의 영광을 망막에 담고서 현재의 폐허를 아쉬워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지난 날에 대한 시인의 태도는 매우 이중적이다. 왜냐하면 시인은 프랑스에서 건너와 카나다에서 꽂힌 문화적인 삶은 경외시하고 그리워하고 있지만, 정작 프랑스 자체를 그리워한다거나 동경하는 감정은 시 속에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시에서 시인이 그리워하는 것은 ‘옛날’의 시간, ‘카리옹’에서 살았던 프랑스적인 삶이다. 그러나 성에서 울렸던 ‘트럼펫 소리’, 풍카름이 지휘한 ‘커다란 전투’, 헛되이 휘둘렸던 ‘깃발’, ‘레비교’, 죽은 ‘병사들’, ‘무덤’ 등은 지리적으로 프랑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메리카에 위치한 카나다의 것이다. 시인은 카리옹의 폐허를 확인하면서 아쉬워하지만, 돌아가 죽을 곳으로 생각하는 곳은 바로 ‘카리옹’이라는 장소, 즉 카나다에 위치한 프랑스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따라서 시인은 시 속에 표현된 감정과 시어를 통해 자신의 정신은 프랑스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기억이 머물고 있는 곳, 그 현재의 장소는 분명 ‘카나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중적인 인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인 인식 태도가 19세기 중엽 이후의 시인들의 보편적인 태도였다.

이렇듯 19세기 초반과는 달리 크레마지가 활동한 중엽 이후부터는 시인의 의식이 조금씩 프랑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 말해서 완전한 하나의 개체가 둘로 쪼개지는 분열적인 의식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시인들이 정신적으로는 프랑스의 문화를 예찬하고 딱습하면서도, 육체적으로는 프랑스가 아닌 아메리카, 즉 카나다에 입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2)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1930)까지의 불어권 카나다 시

19세기의 불어권 카나다 시가 시대착오적인 자아 도취와 자아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20세기 초의 불어권 카나다 시는 19세기의 도취 및 분열 상태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세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문학 현상이 현저하게 달라지지는 않듯이, 20세기 초의 불어권 카나다 시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시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19세기 문학의 연장선에 있었다.¹⁰ 당시 불어권 카나다

시인들은 프랑스에서 시도된 혁명적인 시학을 수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인 개개인은 자신의 작품을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모시켜 갔을 뿐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말해 과거와 현재,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 민족적인 개성과 인류적 보편성이 혼재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이 시기는 <불어권 카나다 문학>이 향후 <魁베 문학>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는 토대를 공고히 마련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비록 위의 상반된 가치와 질서의 개념이 혼재하고 있기는 했지만, 이 시기 몇몇 시인들의 노력과 열정은 이미 확고한 자기 인식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20세기 초 문학의 흐름은 19세기 문학의 흐름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친 결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물음¹⁰에 대답하기 위해 ‘자기 소외’라는 테마를 시에 도입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명예를 진 시인이 바로 에밀 넬리강 Emile Nelligan이다.

신화적인 시인의 이미지로 불어권 카나다 현대시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그의 시는 ‘내적인 소외’를 주제로 삼고 있다. 그와 함께 불어권 카나다의 시는 ‘종족에 대한 찬사, 영웅적인 과거와 전원의 생활을 찬양하는 비가’라는 시대착오적인 속성을 버리고 시인을 사로잡는 개인적인 시적 경험을 실존적인 혹은 형이상학적인 다양한 경험을 통해 표현하게 되었다. 프랑스 시가 여전히 불어권 카나다 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지만, 그 영향은 전원적인 낭만주의 풍이 아닌 미쇼, 샤르, 엘뤼아르, 프레베르에게서 보여지는 새로운 감수성에 의한 것이었다. 19세기 말에 넬리강과 같은 새로운 전위적인 시인들이 출현하게 된 배경의 이면에서 우리는 이제 성직자와 보수주의자들이 더이상 지적인 영역을 모두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회적 변혁의 한 징조를 읽을 수 있다.

이전까지 지나간 ‘시간’에 집착하던 불어권 카나다 시는 프랑스 상징주의 및 초현실주의 시인들의 영향을 받은 넬리강의 등장으로 새로운 변모의 전기를 마련한다. 넬리강은 도시적 현실에서 자신의 시적 영감을 끌어냈으며, 스스로 내부로부터 소외된 존재가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내적 소외’라는 주제로 자신의 찢겨진 존재로서의 삶의 고통을 표현했다¹¹. 근본적으로 낭만주의자였던 그는 자신의 시 속에 20세기 프랑스 시의 주된 흐름들을 수용하기 위해 보들레르 등의 상징주의자들과 파르나스 시인들의 기교를

¹⁰ 20세기魁베文학을 19세기의 연장선으로 잡는 시기는 통상 1930년 이전까지이다. 이렇듯 1930년을 기점으로 경계를 지우는 이유는, 이 시기에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발생했고, 또 새로운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시인들이나 작가들이 자신의 글쓰기에 도입한 주제가 풍부하고 다양하며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이는魁贝文학의 정체성 찾기의 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실제로 1960년 이후로魁贝文학의 정체성은 확고한 뿌리를 내리게 된다.

¹¹ 20세기 초의 불어권 카나다 시에서는 초현실주의의 영향으로 ‘현대의 인간’에 대해 질문하는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 시기의 시는 인류의 운명 앞에서 고통받는 개인이 토로해 놓은 비극적인 어조의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¹² 그의 시는 하나의 거대한 감수성으로 특징지워진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개의 주제는 유년기, 음악, 사랑 그리고 죽음이다.

차용해 시를 쓰기 시작했지만, 점차 카나다의 상황을 인식한 새로운 상징을 창조함으로써 불어권 카나다의 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아래에 인용할 두 편의 시 중 첫째로 보게 되는 <황금의 배 Le Vaisseau d'or>는 보들레르와 랭보, 말라르메를 연금술적인 혼합을 거쳐 만들어 놓은듯이 보이며, 프랑스 상징주의 시학을 전형적으로 모방한 것이다. 이 시에서는 <밤>과 <낮>이란 수직적 이미지의 대비가 강렬하게 눈에 띄며, 다음으로는 상징주의 시에 흔히 표현되는 ‘돛’, ‘미지의 바다’, ‘쪽빛 하늘’, ‘사랑의 요정’, ‘밤’, ‘암초’, ‘세이렌’, ‘난파’, ‘심연’, ‘풍랑’, ‘몽상’ 등등의 시어가 곳곳에 자리잡고 있어 프랑스 상징주의의 세례물들을 잘 배열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따라서 넬리강의 이 시편은 20세기 초의 시인들이 여전히 프랑스 문학의 모방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한 예가 될 것이다.

그것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배였지
돛은 미지의 바다 위 쪽빛 하늘에 닿아 있었고
머리를 형틀어뜨린 벌거벗은 사랑의 요정이
뜨거운 햇살 아래 뱃머리에 누워 있었지

그러나 밤이 왔고, 배는 커다란 암초에 부딪쳤지
세이렌이 노래하는 유혹의 대양 속,
끔찍한 난파, 그런 다음 배 밑바닥이 기울었지
영원한 무덤 심연 깊은 곳으로

그것은 황금의 배, 투명한 옆구리에
보물들 비쳤지, 혐오, 증오, 신경증의
불경한 수부들이 서로 다투던 보물들.

순식간의 풍랑에서 남은 것은 무엇인가?
버려진 배, 내 마음은 무엇이 되나?
아! 배는 몽상의 심연으로 가라앉았네(Nelligan, 1952 : 44)

이렇듯 이 시편은 카나다적인 시라고는 할 수 없는 매우 프랑스적인 시이며, 프랑스 상징주의의 시모음집 가운데 어디에 삽입해도 무난한 시가 될 것이다. 시 속에 나타난 상징과 그 시어들, 상승의 장면을 지나 추락으로 돌입하는 갑작스런 진행, 그리고 추락 후에 내뱉는 한탄과 절망의 확인,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프랑스 상징주의 시편들을 본 든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겨울밤 Soir d'hiver>이라는 시는 <황금의 배>와는 여러 면에서 현저하게 다를 뿐 아니라 기교와 내용면에서 상당히 변모했으며, 프랑스 시와는 상당한 변별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무질서하게 막연한 상상이나 관념어들의 나열을 지양하고, 주제 및 시어, 정서와 인식에 있어서 프랑스 상징주의의 두터운 옷을 차례차례 벗고서 올바른 자기 인식에 도달하려는 욕구가 시 속에 잘 드러나 있다. 더구나 자기 인식에 가까이 가는 첫 단계인 ‘소외’의 경험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또 비극적이

기조차 한 어조로 표현되어 있어, 20세기 불어권 카나다 시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는 시이다.

아! 눈이 내렸구나!
 내 유리창은 성에 긴 정원
 아! 눈이 내렸구나!
 삶의 경련이란 무엇인가?
 내가 가진, 내가 가진 이 고통 속에서

모든 연못은 얼어붙은 채 살아 간다
 내 영혼은 암흑. 나는 어디에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모든 희망은 얼어붙었고
 나는 새로운 노르웨이
 거기, 황금빛 하늘은 사라져 버렸다

울어라 이월의 새들아
 사물들의 암담한 떨림에
 울어라 이월의 새들아
 울어라 내 눈물이여, 울어라 나의 장미여
 노간주 나무 가지 위에서

아! 눈이 내렸구나!
 내 유리창은 성에 긴 정원
 아! 눈이 내렸구나!
 삶의 경련이란 무엇인가?
 내가 가진, 내가 가진 이 권태 속에서¹³

위의 시에서도 비록 프랑스 상징주의의 세례를 받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앞서 인용한 <황금의 배>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 정서와 힘을 느끼게 해준다. ‘벼려진 배’와 ‘내 마음’을 동일시하고 ‘배’가 ‘몽상의 심연’으로 ‘가라앉았다’고 ‘내적 소외’를 표현 하므로써 현실과는 괴리된 추상적인 은유를 사용한 <황금의 배>와는 달리, <겨울밤>은 ‘눈이 내렸다’, ‘성에 긴 유리창’, ‘새로운 노르웨이’, ‘이월’ 등등의 시구에서 드러나듯이 이전의 신비적이고 추상적인 시어 사용에서 벗어나 추운 지역인 카나다를 지칭하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시구로 시가 이루어져 있다. 또한, 상징주의의 수법인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조에서 벗어나, 눈이 쌓인 상태에서의 ‘삶의 고통’과 ‘경련’, ‘얼어붙은’ ‘연못’과 ‘희망’, ‘암담한 떨림’, ‘눈물’ 등의 시어로 삶의 힘겨움을 구체화했다. 게다가 시인이 시 속에서 거듭 묻는 ‘나는 어디에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시구는 ‘암흑’, ‘새’, ‘장미’, ‘경련’, ‘권태’ 등의 시어와 어울리면서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소외’의 근원적

¹³ 1993년 10월, J. Melancon 의 강연 원고에서 발췌

인 이유, 자기에 대한 명철한 인식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넬리강에게서 나타나는 시적 변모는 추상적인 삶의 인식에서 구체적인 자기 인식으로 시인의 내면이 상상력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한 이 점이 이 시기의 시인들이 변모하고 지향해 나가는 방향을 통일적이고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소외’를 주제로 다룬 시인으로 엑토르 드 생-드니-갸르노 Hector de Saint-Denys-Garneau¹⁴를 들 수 있는데, 우리는 가르노에게서 더 정치하게 발전된 ‘소외’의 테마를 볼 수 있다. 가르노는 넬리강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상징주의의 시학에 깊이 빠져들었다가 형이상학적인 위기를 인식하고서, 그 안에서 정신적, 도덕적, 지적인 차원의 탐색을 수행한 시인으로, 그는 그 탐색 속에서 실존과 운명이 그에게 부여하는 진정한 고뇌를 서로 표현해냈다. 따라서 그의 시는 원죄와 은혜, 밤과 낮 사이의 분열된 빈틈을 채우려 의도한 것이며, 스스로에게 삶의 충일성을 되찾아 주고자 한 결과물이다. 그의 〈동행 Accompagnement〉이란 시편 중 일부만을 인용해보면,

내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기쁨의 결을 난 겸고 있네

난 기쁨에 겨워하는 나의 결을 걸네
내 결을 걷는 기쁨에 겨운 내 발소리를 듣네
(...)

난 이 동행의 순간에 만족하네
허나 온갖 종류의 수단과 연금술을 통해
(...)
균형잡기를 통해
어떤 나눔을 은밀히 꿈꾸네 (Saint-Denys-Garneau, 1972 : 101)

‘기쁨’으로 표상되어 있는 분열된 자아를 ‘나’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동행’과 ‘나눔’의 완전한 순간을 회구하는 시인은 ‘소외’의 극단적인 양상인 ‘자아 분열’의 상태에서도 ‘연금술’을 통해, ‘균형잡기’를 통해 개체로 분열된 부분끼리의 은밀한 소통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소통에 대한 욕구, ‘나눔’에 대한 기대는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스스로의 이중성에 대한 확인과, 영혼이 찢기는 냉혹한 투쟁 속에서도 분열된 자아와 완전한 일체가 되고자 하는 시인의 지난한 노력이 돋보이는 이 시편은 1930년

14 넬리강과 마찬가지로 가르노도 상징주의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유시를 썼다. 그의 시는 원죄와 은총, 낮과 밤 사이의 빈 틈을 메워 삶의 충일성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의 시의 두 주제는 어린아이, 새, 춤, 공기, 물, 나무에 의해 상징된 전진 la progression 과 어둠, 우물, 닫힌 집, 불, 벽, 새장과 뼈에 의해 재현된 퇴행 la régression 이다. 이 상징들은 가르노의 내적인 세계-인식, 순결함, 자비 및 환희-로 들어가는 열쇠이자 그의 길을 추적하는 독자에 대한 초대장이다.

이후의 시인들에게서 진정한 삶과 자유, 미래에의 전망 등의 테마로 극복되기에 이른다.

(3) 1930년에서 ‘조용한 혁명’을 전후한 《궤베의 詩》

1930년을 기점으로 이후의 불어권 카나다 문학은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 시기에는 경제 공황이 세계를 휩쓸었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는 사실이 이러한 전개 양상의 우선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사건들로 인해 사람들은 그때까지 지녀온 기존의 가치체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한 체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체계를 찾고자 의도적으로 전복적인 자유와 행위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이외에도 이 복잡한 양상이 필연적으로 연유한 이유는, 프랑스의 식민지 점령 초기인 누벨 프랑스 시대부터 줄곧 계속 되어온 불어권 카나다의 정체성 찾기가 이 시기에 이르러 커다란 벽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이때의 벽이란 이전의 시인들이 전통적인 가치에 집착하는 한편, 모든 문제를 자신만의 내부적인 문제로 몰아가 ‘내적 소외’로 집약시킨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모든 것을 자신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이런 행위는 자기와 타자간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세계를 개체의 영역으로 환원시켜 전체적인 줄기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내적 소외’로 명명되는 앞선 시기의 시인들의 작업은 한층 더 복잡다기한 양상을 띠고 국제화의 흐름을 죄는 이 시기에는 오히려 자기 인식의 결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그 결과 불어권 카나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관된 흐름은 편협하게 좁아지기만 할 뿐이어서 이 시기의 시인들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만 했다. 하지만 모든 가치가 전도되었고, 기존의 질서에 반발하고 반항으로 일관하던 시기에 행해진 새로운 모색을 위한 작업은 일정한 틀을 갖추지 못한 채 개인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 시기의 시인들의 작업은 여러 방향으로 자유롭게 분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의 여러 경향을 대체적으로나마 포용할 수 있는 말은 아마도 ‘자유’라는 용어일 것이다. 하지만 이 ‘자유’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영역이 아니라, 주제와 그 주제에 따른 형식에 한정되는 개념이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시인들은 새롭고도 다양한 주제로 시를 썼고, 그 주제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에서부터 사회적이고 철학적인 영역을 두루 걸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라는 바람을 최초로 불어권 카나다 문학에 불고 온 시인 알랭 그랑브와 Alain Grandbois 는, 억압, 혐오, 소외를 주제로 다룬 넬리강이나 야르노와는 달리 사랑과 죽음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주제를 변주해 형이상학적인 고뇌를 표현했다. <옷장을 닫아요... Fermons l'armoire...>라는 아래의 시편에서, 시인은 <밤>-<죽음>이란 이미지 앞에서 절망하거나 달아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죽음은 단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할 뿐이다. 시인은 <밤>이 다가오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지만, <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투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마법의 옷장을 닫읍시다

놀이를 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

너무 늦었다는 걸 난 압니다
 이미 계곡이 낮을 삼켜서
 유령의 시간이 왔습니다
 허나 황금빛 석양이 보입니다
 부드러운 자홍빛으로 기우는 게
 별들이 뿌려진 경탄스런 겹은 장막도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걸 너무나 좋아했던 나는
 사랑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옛날에 난 완전한 세 그루의 실편백을 보았지요
 하얀 집 앞에서
 난 보았고, 입을 다물었지요
 그러나 내 괴로움은 비할 데가 없습니다¹⁵

위의 시를 포함한 그의 초기 시편들은 죽음 앞에서의, 그리고 인간의 기억을 지우는 시간의 경과 앞에서의 형이상학적인 고뇌를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후기 시편으로 가면서 그가 표현하는 20세기 인간의 고뇌는 점차로 주관성에서 벗어난다. 그는 운명의 우연성에 용감하게 맞서고, 형이상학적인 고뇌를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넬리강이나 가르노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중요한 또 한 명의 시인, 열렬한 종교적인 색채를 띤 리나 라스니에 Rina Lasnier¹⁶ 의 시편들은 폴 클로델 Paul Claudel 의 시와 흡사하다. “절대 속에서 존재이유를 찾는다”고 평한 비평가 장 에티에 블레 Jean Ethier-Blais 의 말처럼, 시인의 시구는 ‘바다’, ‘물’, ‘창공’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성서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그녀의 시는 언제나 침묵과 말, 사랑과 절망 사이에 있는 인간의 실존적 모순 속에서 생명력과 힘을 발견한다. 그녀에게 있어 말은 일종의 모험이며, 행복과 진실은 열렬히 추구해야 할 대상이었다. 또한 그녀는 물이나 나무 같은 가장 기본적인 상징을 사용해 무와 절대 사 이에 양분되어 있는 세계와 조화를 이루었다.

또한, 소설가이자 세 권의 시집을 낸 시인인 안느 애베르 Anne Hébert 는, 첫 시집에서 공허함과 고통만이 있는 세계의 외양을 조사하고, 두번째 시집에서는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세계에서 사색의 세계로 도피하지만, 세번째 시집에서는 세계의 부활이란 차원에서 행복을 인식한다. 그녀는 우주적 동포애와 연대감에 호소하고, 가스통 미롱 Gaston

¹⁵ Alain Grandbois, *Les Iles de la nuit*, 1944 : Melancon 의 강연 원고에서 발췌

¹⁶ 영문학을 전공했으며, 기자와 도서관 사서의 직업을 가졌던 그녀의 시는 종교적, 성서적, 신화적 영감의 소산으로 퀘벡시에서 정신적인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Jean Royer(présentée par), *La Poésie québécoise contemporaine*(Anthologie), l'Hexagone, 1987, p.231.

Miron 과 가티엥 라포앵트 Gatien Lapointe 와 동일한 주제를 취한다. 사회에 의해 가해지고, 동시에 조상들의 분열과 소외로 초래된 고통을 거부한 그녀의 시는 삶, 자유, 진정성에 대한 노래이며, 미래에의 거대한 전망을 심어주는 시이다.

그러나 이처럼 자유로운 주제로 다양한 관심사를 표현하며 자기 인식의 방향을 모색 하던 불어권 카나다 문학은 1960년 <조용한 혁명 La Révolution tranquille>을 계기로 정체성을 갖추어 가고, 가스통 미통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70년 경에 이르면 정체성의 출기를 잡으면서, 동시에 <魁베 문학>이라는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1953년 액사곤 Hexagone 출판사를 동료 시인들과 함께 설립한 미통은 참여시인으로서 퀘벡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고, 착관적인 소외의 경향을 거부하는 동시에 카나다가 아닌 퀘벡을 애정 깊은 경외심으로 노래했다. 그에게 있어 국가라는 주제는 사랑, 여인, 자유라는 주제와 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었다. 그는 퀘벡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동포애라는 끈끈한 관계를 갖고 현실의 부조리를 타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자신의 시 속에서 퀘벡인들의 집단 의식을 표현하고자 했다.

서사시와 서정시, 묘사적이고 교훈적인 시편들이 망라되어 있는 미통의 시는 독백이나 대화의 형태로 모든 세대의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그의 시들은 퀘벡인들 각자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과, 그들이 <퀘벡땅>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이렇듯 땅과 민족을 결합시키려 한 미통은 미소유를 소유로, 소외를 정체성으로, 고통을 행복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어 놓으려 했다. 그는 참여 시인으로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천박하게 만들며, 공포와 굴욕 속에서 살도록 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몰도록 퀘벡인들의 집단 의식을 각성시키고자 했다. 따라서 그는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세계를 향하려고 했고, 사람들이 사는 조국, 동물과 식물, 하늘과 빛이 살고 있는 조국을 노래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아래의 시편, <10월 Octob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대 인간은 태형받은 얼굴을 하고 있다.

그대, 퀘벡의 땅이여, 용기의 어머니여
기나긴 걸음 속에서도 그대는
육체와 정신에서 끊없이 걸어낸
우리들 타버린 고통스런 꿈을 담고 있구려

저 위 북방 힐벗은 옛 산맥에서
나 그대의 아들로 태어나
아픔과 고통을 간직하도다, 오 탄생의 상처여
청춘이 내 팔 속에서 붉어져 가는 동안

나 여기 무릎꿇노니, 용서하시길
아버지의 지성을 육되게 했고
빛나는 말들을 타락시켰고

형제들 스스로 수치와 경멸에 이를 때까지
고통의 뿌리를 각자가 참아온 더 큰 고통에
연결시킬 줄 몰랐습니다

나는, 고통이 덩어리로 뭉친 유사(流砂) 한가운데에서
투쟁으로 공동운명이란 양식을 함께 나누는
열렬한 동료에게로 갈 것입니다

퀘벡땅이여, 그대에게 만들어주리라

부활의 잠자리를

(...)

그대의 맥박 역사 속에서 뛰는 것을 우리 듣게 되리라

10월의 가을 속에서 우리는 움직인다

빛 속에 들려 오는 갈색 노루 소리

해방된 미래

참여하는 미래(Miron, 1970 : 62)

전체 5연으로 이루어진 위의 시편은 내용에 따라 두 부분으로 가를 수 있는데, 제 3연까지인 전반부에서 시인은 ‘고통’스러웠고 ‘수치’와 ‘경멸’로 가득찬 지난 시간을 반성하는 냉철한 자기 인식을 보이고 있다. 시인은 고난 속에서도 꽃꽂이 벼텨온 퀘벡의 현실을 퀘벡인들의 보편적인 정서로 담아내고 있는데, 수세기가 지나도록 퀘벡인들이 지녀온 ‘타버린 고통스런 꿈’을 말없이 인내하며 간직한 <퀘벡땅>-<어머니>의 용기에 시인은 연민과 찬사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북방 혈汭은 산’에서 태어나 젊음이 다하도록 ‘아픔’과 ‘고통’을 간직한 ‘나’(시인-퀘벡인)는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선조들을 육되게 했고, 종족의 말을 타락시켰으며, 서로가 분열되어 고통을 나눌 줄 몰랐던 것을, 집단 의식의 부재를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반성이 자기 정체성 발견의 중추를 이룸은 물론이다.

후반부에서 시인은 반성과 성찰의 결과로 얻어진 행동 양식을 공표하고, 해방된 조국과 낙관적인 미래의 전망을 예측하며 퀘벡인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있는데, 시인이 따라야 할 행동 양식은 ‘고통이 덩어리로 뭉친 유사(流砂)’ 속에서 서로 갈등하여 다투며 등을 돌리는 동족을 화해시키면서 공동 운명체임을 인식시키려는 굳건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부활’과 ‘노루 소리’로 암시되는 희망, ‘10월, 가을의 비’ 속에서 ‘움직이’며 행동하는 ‘미래’, 이러한 것이 ‘나-우리’의 지향점이라고 시인은 힘주어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퀘벡의 위대한 시인으로 평가받는 미롱 이외에도 퀘벡 문학의 정체성을 노래한 시인들도 있는데, 그들은 가티엥 라프엣트 Gatien Lapointe 와 폴 샹베를랑 Paul Chamberland¹⁷, 미셸 라لون드 Michèle Lalonde¹⁸이다. 참여적 사회주의자이자 혁명의 시인

¹⁷ 1939년 Longueuil 태생. 몽레알의 철학 교수였다가 퀘벡의 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잡지『방침 Parti pris』에 가담했다.

인 샹베를랑은, 시인은 언어로써 대중과 만나는 사이므로 대중이 사용하는 말을 해야 하며, 그 언어로 문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진흙, 바로 진흙이야말로 아침의 초상 위에 새겨야 할 태초의 흙이자 창조의 재료이며, 우리의 육체이자 의식이다. 잘 쓰지 못하지만 우리의 말로 쓴다는 것, 그것은 지옥으로 내려가서 그곳으로부터 유리디체, 즉 퀘벡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끌어내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언어 사용에서 퀘벡 문학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동시에 찾고자 했다. 그는 퀘벡의 열악한 생활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제대로 못 쓰는 것 mal écrire’, 즉 먼지와 더러움과 진흙으로 쓰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향했다. 그는 또한 이의제기적인 작품인 〈퀘벡땅 Terre Québec〉에서 카나다라는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소수의 퀘벡인의 직접적인 행동을 찬미했다. 그의 시가 자신의 혁명적 이상과 사회주의를 향한 그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듯이, 그의 신념 또한 시인이 진정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전적으로 참여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시인의 발언이 전적으로 혁명에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를 퀘벡과 퀘벡의 거주민들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주는 창조의 도구로 삼았다.

이렇듯, 퀘벡의 시인들은 언어-시어를 도구로 해서 퀘벡 문학의 정체성을 향해 목직하고 진실한 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 가는데, 1970년 미셸 라롱드의 한 편의 시는 이러한 걸음걸이를 한층 더 재촉한다. 그 시는 발표되자마자 모든 퀘벡인의 가슴을 분노와 수치로 가득 차게 했고, 그 결과 퀘벡인들로 하여금 지나온 과거와 현재의 삶, 미래의 전망까지 깊이 있게 생각하도록 만든 〈백인말로 말하라 Speak white〉라는 시이다. 이 시 편은 역설적으로 아메리카에 위치한 퀘벡의 언어를 응호하며, 퀘벡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으라고 촉구하는 시이다. 시인은 시 속에서, 다수의 영국계가 지배하는 카나다에서 힘겨운 삶을 살며 억압과 냉대에 가슴졸이는 퀘벡인들의 삶을 날카롭게 재단하고, 이어 흥분과 환멸을, 반성과 의지를 불러 일으켰다. 시구 하나하나는 모두가 다 번득이는 비수가 되어 퀘벡인들의 가슴을 후비어 들었고, 퀘벡인들로 하여금 하나의 행동, 하나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백인말을 쓰십시오! 세익스피어의 소네트에서 엿보이는 이름 모를 곱상한 얼굴이나 실락원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우린 미개하고 말을 잘 못하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언어의 천재의 말에도 귀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밀턴과 바이런, 셀리, 키이초의 억양으로 말하십시오. 백인말을 쓰십시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조상들의 거친 노래와 설움을 가진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백인말을 쓰십시오!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대현장이나 링컨 기념물, 타미즈의 화색빛 매력, 포토맥의 장미빛 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들의 전통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뛰어나지도 못한 민족이지만 보스톤 차사건의 중요

18 1939년 몽레알 태생으로 언어적이고 민족적인 문제를 글로 쓴 시인으로 유명하다. 시인이자 극작가인 그녀는 시낭송을 즐겼는데, 1969년 퀘벡의 정치범을 위해 마련된 《저항의 노래와 시 Chansons et poèmes de la résistance》라는 공연에서 〈Speak white〉를 낭송해 퀘벡인들의 민족적 자각을 일깨웠다. 간결하고 저항적인 그녀의 시는 퀘벡의 민족문제를 다룬 정치극이나 다큐멘터리에 평가를 받고 있다.

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받은 삶에 대해서, 생활수준에 대해서, 위대한 사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백인말을 쓸 때, 좀 더 크게 말하십시오! 자 백인말을 쓰십시오! 감독관같이 목청을 높이십시오! 우리는 약간 귀가 멀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기계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장비들 위에서 헐떡이는 우리의 숨소리를 들을 뿐입니다. 백인말로 크게 말씀하십시오! 생·양리(몽레알의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부터 생 도미니끄까지 여러분의 말이 들리도록! 명령을 하고 작업을 마치는 시간을 부여하기에 이 얼마나 멋진 언어입니까! 백인말을 쓰십시오! 생산, 이득, 이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백인말을 쓰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사기에도 풍족한 언어이지만, 특히 자신을 팔기에, 영혼을 잃으면서 자신을 팔기에, 진정으로 자신을 팔기에 풍족한 언어입니다. 아! 백인말을 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루 동안의 과업이 진정 얼마나 길었는지를 말하기 위해, 평범한 수위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 저녁 소로 위로 해가 끼지면 곧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그래요, 해가 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욕설을 담은 말, 더러운 기름으로 얼룩진, 그리 깨끗지 않은 우리의 말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백인말을 쓰십시오! 우리는 한맺힌 백성입니다. 하지만 세이스피어의 부드러운 언어 속에서 언어교정을 득점했다고 그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베트남이나 콩고에서처럼 순수하고 끔찍이도 순결한 불어를 말하십시오. 이빨 사이의 노란별인 온전한 독일어로 말하십시오. 러시아말을 하십시오. 질서의 회복을 말하고 억압을 말하십시오. 백인말을 쓰십시오! 그건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우린 이 눈물나고 지겨운 말과 함께 그것을 이해하도록 태어난 것입니다. 백인말을 쓰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유와 민주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비참이 겸동이의 단어인 것처럼, 피가 알제리 골목길의 먼지에 섞여드는 것처럼, 자유란 혁인의 날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백인말을 쓰십시오! 웨스트민스터에서 워싱턴까지 교대로! 백인말을 쓰십시오! 월스트리트에서처럼! 임기응변의 우리의 화법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정중히 “안녕하십니까 How do you do?”라고 물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강한 억양을 가진 긴 영어 문장으로 답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Lalonde, 1974)

위에 인용된 이 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백인말을 쓰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사기에도 풍족한 언어이지만, 특히 자신을 팔기에, 영혼을 잃으면서 자신을 팔기에, 진정으로 자신을 팔기에 풍족한 언어입니다’라는 구절이다. 시인이 이 시편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말’과 ‘영혼’과 바꾸는 것, 타인의 언어에다 자신의 본질을 의탁하는 것, 그것은 물질적인 풍족과 정신적인 가난을 매매하는 것이며 종족의 본질을 배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카나다에 이민의 씨앗을 뿌린 이후로 내내 자아와 육체의 분열이라는 불행한 상태를 지속해온 퀘벡인들에게 시인은 매몰차고 단호한 어조로 결코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시인은 소수 민족으로서 삶의 힘겨움을 등에 진 퀘벡인들에게 ‘욕설을 담은 말, 더러운 기름으로 얼룩지고 그리 깨끗지 않은 우리의 말보다 가치있는 것은 없다’며, 자유와 민주, 비억압과 질서정연함은 스스로의 것을 온전히 찾을 때 비로소 획득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小說

(1) 20세기 중반까지의 퀘벡 소설의 전개와 소설 속에 나타난 정체성의 양상

앞서 언급한 대로 불어권 카나다에서 초기 소설 작품들이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이며, 프랑스를 모방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당시의 소설들은 대지와 자신의 고장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곧 향토소설로 굳어지게 된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언급되는 고장들은 교회의 막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었고, 따라서 이 소설들은 매우 교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1846년에 발표된 파트리스 라퐁브 Patrice Lacombe의 『아버지의 땅 *La Terre paternelle*』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다.

그의 선량한 이웃들이 멀어지는 것을 다니스 신부가 보았을 때, 이번에 그가 눈물을 쏟을 차례였다. 사를은 이에 감동했고, 그 용감한 사람이 그의 가족을 궁지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아는 터라, 농가에서 그 신부와 늙은 마리안느를 위한 일자리를 찾았다.(Tétu, 1992 : 15)

모든 것이 좋게 끝난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착하고, 감동받으며, 모두 용감하다. 이렇듯 교회와 가족, 고장, 선한 사람들, 훈훈한 인간미로 엮어지는 이상적인 농촌 사회가 당시 소설들의 주요 주제였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상적 공동체의 이념은 20세기 초까지 불어권 카나다인들을 이끌어 온 정신적 지주가 된다. 이러한 이념이 집단적으로 강조되고 많은 작가들에 의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이면에는, 자신들의 문화를 프랑스 본토 문화와 구별짓고 차별화하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었다. 퀘벡의 작가들은 당시 프랑스 문학을 모방하고 그것에 의존하면서도 주로 도덕적인 이유들로 인해 프랑스 문학으로부터 거리를 두려 하였다. 프랑스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부정적이고 위험한 내용의 연애소설들, 왕을 죽이고 혁명 정신에 충만한 프랑스인들의 타락한 풍습들, 퀘벡의 작가들은 이러한 점들을 거부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파트리스 라퐁브는 앞서 언급한 소설의 결말에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몇 명의 독자들은 어쩌면 우리가 이 이야기에다 비극적인 결말을 내리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주인공들이 차례로 난폭하게 무대 뒤로 사라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시대의 수많은 소설들 – 이곳에 등장하기 시작한 프랑스 소설들 – 처럼 끔찍하게 끝나는 것을 보고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속이 대체로 순수하고 순박한 고장에서 글을 쓰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애초에 이 작품을 살인이나 독살, 자살로 끝내는 것으로 계획했다면, 이 작품의 개연성은 사라졌을 것이고, 심지어 무척 우스워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Tétu, 1992 : 15)

이렇듯 퀘벡의 작가들은 종교적이고, 정직하며, 품행이 방정하고, 부와 안락을 즐기며, 거만을 멀거나 과시함이 없이, 체념과 인내로 지고의 역경을 견디어 내는 땅의 자식들을 그리려 하였다. 그들이 소설 속에서 형상화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덕성스런 품성

을 지니고 있고, 이런 점에서 발자크나 스탕달의 소설에서처럼 덕성스런 인물이 희귀하게 등장하는 경우와는 커다란 대조를 보여준다. “망가져 버린 문명이 빚어낸 피로 얼룩진 소설은 낡은 지방에 남겨 둡시다”라는 말 속에는 프랑스 본토를 포함한 유럽 문명 전체의 문학적 타락에 대한 비판과, 아메리카 대륙을 개최하면서 새로운 문학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불어권 카나다인의 진취적인 의지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이처럼 불어권 카나다 소설가들은 작품의 내용적 측면에서 프랑스 소설들과의 차별화에 주력하였으며 다소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들의 소설은 접속법 반과거 및 그 외 필요한 요소들을 다 사용한 완벽한 불어로 쓰여져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그들의 문학을 훌륭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는 못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퀘벡의 작가들은 ‘언어의 질’의 차원에서 카나다의 불어가 프랑스의 불어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자각을 하기 시작했고,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갖고자 하였다. 작가들의 이러한 노력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온 퀘벡인들의 언어 의식의 변모, 즉 프랑스 본토 언어에 대한 일종의 언어적 죄의식으로부터 퀘벡 불어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변모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퀘벡의 시인 크레마지 Crémazie는, 프랑스의 문학 동향을 알기 위해 그 곳을 방문중인 카스-그랭 주교에게 1867년 1월 29일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우리가 이로구아 말이나 위롱 말을 쓴다면 우리 문학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아주 어설픈 방식으로, 보쉬에와 라신느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창작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한낱 식민지에 불과합니다.” 불어권 카나다 문학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크레마지의 견해는, 불어권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문학적 헤게모니를 전파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불어를 바라보는 크레마지의 언어적 자의식은, 퀘벡의 작가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불어를 문학적 표현 수단으로 갖고자 하는 노력의 초기 단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04년 까미유 르와 Camille Roy는 ‘카나다 문학의 민족주의화’라는 강연회에서 퀘벡 문학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강연을 한다. 그는 프랑스 문학과 카나다 문학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관계를 재확인하면서도, 자칫 퀘벡의 작가들이 ‘생-로랑 Saint-Laurent¹⁹ 연안을 배회하는 프랑스 작가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시한다. 카나다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프랑스 문학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의식 구조나 넋까지 그 프랑스인을 닮아서는 안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카나다 문학의 가장 위험한 경쟁자는 바로 프랑스 문학이라는 것이다. 카나다 문학이 프랑스 문학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은, 현재의 프랑스인들에게 팽배한 정신과 카나다인들의 정신이 엄청나게 달라져 있기 때문이라고 르와 Roy는 언급한다. 사실 카나다인의 넋은 기후와 법체제 그리고 민주적 풍습들의 영향으로 깊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카

¹⁹ 온타리오 湖에서 발원하여 몬트리올과 퀘벡을 관류하여 대서양으로 빠지는 카나다의 대표적인 江 으로 그 일부가 미국과의 국경을 이루고 있다.

나다 문학과 프랑스 문학 사이에는 카나다인과 프랑스인 사이에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다른 작가들에 의해서도 표명된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것인 그리고 우리를 위한 문학을 만듭시다. 무엇보다도 외국인 독자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것은 쓰지맙시다.” 말하자면 작가들은 카나다의 독자를 위해서 써야지 프랑스 독자를 위해서 쓰지는 말자는 것이다. 또한 “카나다인의 정신이 개성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문학을 민족주의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전략은 단 하나의 목적 즉, 문학과 민족성 사이에 어떤 필연적인 연결 고리를 확보하려는 데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론가인 르와의 입장에서 볼 때 무상의 문학이라는 것은 ‘피상적이고 경박한 것’으로 여겨졌다. 반면 진정한 문학은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의 표현임과 동시에, 종족과 민족성의 차원 높은 관심들에 항상 충실했던 수호자이다.” 그리하여 작가들은 불어로 말하는 것의 영향력과 카나다인들로 가득찬 소설 속에 카나다인의 넋의 모든 양상들, 모든 힘과 모든 관점들을 옮겨 놓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1912년에 있었던 제 1회 카나다 불어 회의에서 리오넬 그루 Lionel Groulx은, “한 민족의 문학은 그 민족과 동질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그러면서 그는 영어권 카나다인들과의 문화 투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프랑스 고전주의 문학을 참조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물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프랑스의 고전주의 전통이다. 이러한 견해는, 프랑스가 지적 혜개모니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고전주의 문학 때문이라는 인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퀘벡과 퀘벡 문학의 표현 양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프랑스의 존재는 여전히 문제가 되었다. 한편으로, 프랑스인들에 대한 맹목적 모방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카나다 문학은 항상 아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프랑스의 거장들을 자주 접함으로써 그들의 숨씨를 배우고 불어의 특성을 보존할 수 있다는 인식 또한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3세기에 걸친 카나다인들의 자율적인 삶은 카나다인들의 세계관을 변화시켰고, 따라서 프랑스 문학은 거기에 적합치 않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인식이다. 각각의 사회는 각 개인이 그러한 것처럼, 어떤 이유로도 달리 환치될 수 없는 자신만의 문제를 갖게 되어 있다.

그루 Groulx이 설교했던 바와 같은, 카톨릭적이고, 불어로 쓰여지고, 카나다적인 문학은 대의명분에 봉사하는 일종의 참여 문학이다. 국가적인 불안정과 사회적 동요 그리고 경작지에 대한 증오, 이 모든 상황들이 문학으로 하여금 이념의 선전매체가 될 것을 요구하였다. 작가들은 이러한 선전에 문학적 외피를 씌우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문학 비평가들이 그것을 독려하였다. 깨미유 르와의 보호 아래 문학 비평가들은 여러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선 주제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해서 오로지 국가에 대해서만 말해야 했다. 관점이나 방법은 어떤 것도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 작가들이 카나다의 문제를 환상없이 직시하였는가는 의문이다. 이들은 가령 루이 에몽 Louis Hémon 이 국가를 간혹 가혹하게 다루었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에게 있어 국가란 무엇보다도 시끌이지, 있는 그대로의 국가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과거의 좋은 시절’이 부여하는 후광으로

덮인 세계이다. 또한 주제를 다루는 방법이 암암리에 정해져 있었다. 소설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보다 낫고, 전통이 새로움보다, 시골이 도시보다, 종교가 신성모독보다 우월해야 했다. 복종과 회생이나 체념의 정신이, 신의 의지에 몸을 맡김으로써 얻어지는 행복의 기반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宗規들에 순응하는 자들이 좋은 작가로 인식되었고, 그들의 동향인들로부터 찬사를 얻을 권리가 주어졌다.

문학가들의 수사법은 농부들의 수사법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영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규정될 수 있다. 그 수사법은 미적인 것이 아니라 설득을 목적으로 하였다. 시인이나 소설가나 이야기 작가들은 유년의 기억을 탐사하고, 상황의 비장감을 강조하고, 사물들에게 자신들의 언어를 빌려 주었다. 작가는 잘 규정된 독자에게, 특별한 상황 속에서 말을 한다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작품은 즉각적인 반응을 유발해야 하며, ‘속죄의 에너지’를 일깨워야 한다. 과거에 가치를 부여하고 전통을 고수하며 미래의 행동을 받아적는 것이야말로 작품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다.

조상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그들에게 넘어설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함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모든 발전은 어떤 퇴보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회는 고대를 모든 영역에서의 정상으로 여기는 회고주의적 전통 속에 빠져들게 된다. 과거에 충실하다는 것이 과거의 현실에 충실한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기원의 세계라는 것은 항상 전설을 변형시키는 후광을 통하여 인식된다. 그 세계는 정태적이므로, 쉽게 스테레오타입으로 변화한다. 수레바퀴, 물레, 빵 반죽통 등 친숙한 대상들은 상징으로 변한다. 농부들의 다양한 표정들도 마찬가지이다. 그 표정들은 시인의 눈에 진정한 儀式 rite 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경작지나, 파종 그리고 수확은 마치 한 계절에서 다른 계절로 옮겨가는 儀式과 같은 것이었다.

계절의 순환 속에 새겨지는 이러한 儀式은 끊임없는 생신을 통하여 (세속적) 시간으로부터 보통 벗어나게 마련이다. 향토주의적 담론은 이러한 회고적 전망을 통하여 소멸하는 자신들의 세계에 가해지는 위협에 저항하고자 하였다. 이 ‘공식’ 문학에서는, 원시적 농업의 댓가로 치뤄야 했던 불행들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19세기의 경제사는, 소설과 시들에서의 폭가적 서술과 고통스럽게도 대조를 보인다. 잘 개간되지 않은 소규모 땅에서의 낮은 생산성 때문에 미국으로의 이민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소설과 콩트와 이야기들은 아주 환상적인 상황들을 기술하였다. 농부들의 진정한 고민은 그들의 많은 자식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충분한 땅을 발견하는 것이었는데 반해, 향토 소설은 문제를 역전시킨다. 다시 말해, 늙어가는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땅을 자신의 유일한 아들에게 물려주려 한다. 그런데 아들은 정작 도시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골을 떠난다는 것이 문제의 초점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농장은 번창하고, 풍족한 수확과欲나가는 부동산은 환상을 위해 모든 것을 거부하는 이들을 무관심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다. 당시의 경제사가 더 잘 밝혀짐에 따라 경제 문제를 고의적으로 숨기고자 했던 이러한 수사의 계책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향토의 수사 *rhétorique*의 다른 양상은 유년의 세계와 관련을 맺는다. 많은 작가들의 경우에, 조상 전래의 과거와 그들의 유년 사이에는 지속적인 동일화가 이루어졌

다. 집단적 기억의 시원에 위치해야 할 기원의 세계가, 나이든 세대들이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입증할 수 있는 최근의 과거와 뒤섞여 있다. 그리하여 최근의 과거는 성스러운 기원의 세계 속에 통합된다. 새로운 현실은, 새로운 세대에게 가까스로 자리를 내주려고 하는 세대의 눈으로 볼 때 신성모독처럼 보인다. 시간의 흐름을 멈추기 위해, 완료된 세계를 약탈하기 위해 준비하는 젊은이들을 단죄하기 위해, 구세대는 유년의 추억을 되살린다. 유년 속에서는 모든 것이 애정이고, 동정이고, 이해이기 때문이다. 자기들의 땅에서 그처럼 공격당한 젊은이들이 그와 같은 수사에 대해 무감각할 수 있을까?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에서, 아버지에 대해 조금도 굴복하지 않는 아들들의 비인간성을 작가들은 비판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하지만 아들이 땅을 저버리고 떠났다가 죽음을 당해도 아무도 아버지를 비난하려 하지 않는다. 잘난 아이는 적절한 징벌을 받았을 뿐이니까. 이 향토의 서사는 소설과 콩트, 단편 덕에 꽂피어나게 된다.

그러나 향토 소설 roman régionaliste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1920년까지는 몇 권의 보잘 것 없는 성과가 있었을 뿐이다. 1908년 다마즈 포트벵 Damase Potvin이 진부한 내용의 소설을 하나 썼고 이 작품은 4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출간된 70여권의 농촌소설 romans agriculturistes의 전형이 되었다. 한편 1916년에 발표된 루이 에몽 Louis Hemon의 『마리아 샤프들렌 Maria Chapdelaine』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포트벵의 소설 속에는 더욱 직접적인 그리고 노골적으로 긍정적인 선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소설가들과 웨베의 정치가들이 루이 에몽의 소설을 하나의 모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920년대에 와서야 이 소설 장르는 비로소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1925년 한 해에만 로르 코낭 Laure Conan의 『불멸의 정기 La sève immortelle』, 해리 베르나르 Harry Bernard의 『살아 있는 땅 La Terre vivante』, 클루띠에 Joseph-E.-A. Cloutier의 『뻬에르 지라르의 오산 L'-Erreur de Pierre Giroir』, 아델라르 뒤크레 Adélaïd Dugré의 『카나다의 전원 La Campagne canadienne』, 다마즈 포트벵 Damase Potvin의 『프랑스인 Le Français』 등의 작품들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 소설 장르가 전성기를 맞은 것은 1930-1940에 이르러서이다. 경제 위기로 인해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고, 실직자들이 도시마다 우글거렸다. 당황한 정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민화 정책 이외의 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농업주의자들은 호기를 맞아 요란스럽게 선전을 해댄다. 소설가들은 이번에는 그들의 ‘참여’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선전문학 중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문학성을 잃지 않은 작품들이 있다. 『북-남 Nord-Sud』, 『한 사람과 그의 죄 Un homme et son péché』, 『별목군 십장 므노 Menaud, maître-draveur』, 『30 아르팡 Trente arpents』 그리고 『위대한 운반의 참가자들 Engagés du Grand Portage』 같은 작품들이 그것이다.

최초의 진정한 향토 소설은 『마리아 샤프들렌』이다. 루이 에몽은 프랑스에서 유행하는 소설 경향에 휩쓸려 가지 않고, 향토 소설을 생산하기에 걸맞는 자기 나름의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동료들은 그 소설을 『오베를레 Oberlé』나 『타르타렝 드 타라스콩 Tartarin de Tarascon』 같은 소설들의 부류에 넣어 취급했다. 그러나 그 소설이

퀘벡에서 향토 소설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몽레알인들은 그 소설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려하지 않았으며, 작가가 동족들을 헐뜯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후에 그의 작품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마리아 샤프들렌』 이후 발표된 또 하나의 대표적인 향토 소설로는 『별목군 십장 므노』가 있다. 향토 소설들이 갖는 공통점 중에서도 작가가 자신의 종족과 국가에 대해 동정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은 중요하다.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향토 소설과 유사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시각이 전혀 다른 소설들과 향토 소설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라 스쿠인 *La Scouine*』은 농촌 소설에 필수적인 작가의 동정이 없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향토 소설과는 거리가 있다. 발자크의 『농부들 *Les Paysans*』이나 졸라의 『대지 *La Terre*』가 작가의 입장 때문에 농촌 소설로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라 스쿠인』은 농촌 소설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될 수 있다. 또한 『무노』를 접할 때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 소설을 주인공들과 어떤 지역의 특별한 관계를 다룬 것이라고만 한정시키는 것은 이 소설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라니 점이다. 『무노』는 일종의 우화 fable이다. 거기에서는 인물들과 지리적 사건들은 물론 모든 것이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무노』는 농촌 소설 이상으로 한 종족의 서사시인 것이다.

지금까지 전개된 개념을 이제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향토 소설 중에서 문학사적으로 대표작으로 꼽히는 『마리아 샤프들렌』과 『무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루이 애몽 Louis Hémon 의 『마리아 샤프들렌』이 발간된 것은 1913년의 일이다. 루이 애몽은 퀘벡의 생 양 호수 지역에 있는 페리 봉카에서 농가의 일꾼으로 일한다. 거기에서 그는 프랑스계 카나다 개척자들의 전통적인 삶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는 소설 속에서, 몇 세대에 걸친 불어권 카나다인들의 커다란 슬픔에 덧붙여, 그들 사회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식민지적 세계, 나무꾼들의 세계가 원시적이고 원래적인 상태로 드러나게 된다. 소설의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전통적인 개척자인 사뮈엘 샤프들렌은 개간할 땅에 매혹된다. 그는 카나다의 처녀림에 도전하고자 한다. 그의 부인은 도시 주변 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괴로워 한다. 그러나 그녀는 침묵하며 성실하게 고생을 감내한다. 딸 마리아는 단순하고 좋은 성격으로 호감을 주는 아이이다. 그녀는 일상적 삶의 어려움을 감내하는데, 그녀의 용기와 금욕주의 덕에 모든 역경과 절망을 헤쳐 나간다. 세 명의 남자가 그녀의 환심을 사려한다. 먼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주정뱅이 나무꾼 프랑스와 파라디가 있다. 그는 불안한 성격에다 정착된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 나무꾼이다. 그는 축제날 마리아의 집에 오려 하다가 눈보라를 만나 실종된다. 다음으로 로렌조란 인물이 있다. 이민온 프랑스계 미국인인 그는 편안한 미국으로 살려 오라고 마리아를 초대한다. 그는 마침내 앵글로-색슨 문화에 동화된 것이다. 마지막 인물은 외트로프 가농이다. 마리아의 이웃에 사는 단순 경작자인 그는 마리아가 이미 알고 있는 삶 이외에는 아무 것도 그녀에게 제공할 수 없다. 어머니가 죽었을 때 마리아는 퀘벡에 남으라고 설득하는 땅의 소리를 듣는다. 외트로프와 결혼한 마리아는 프랑스계 카나다 종족의 이상을 구현한다.

퀘벡의 대지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는 마리아에게 종족의 연원과 덕성스러움을 알리고, 돈과 권력을 독점한 야만스런 이방인들의 위협을 경고한다. 그러나 퀘벡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에 찬 어조로 강조한다.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들이 그 증거이니까. 우리들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이 의무밖에 모른다 : 버티며 끈질기게 존속해 나간다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생존해왔고 앞으로 아마 몇 세기가 지난다 하여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죽을 줄 모르는 민족의 후예들이야”라고.(Hémon, 1924)

이 소설이 쓰여질 당시에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고, 많은 퀘벡 사람들이 영어권의 도시들과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이념의 틀을 고수하며 고장을 지키고 사는 퀘벡인들에게 도시와 미국은 환상이요 위험한 신기루처럼 생각되었다. 그리고 2,500만 명에 이르는 영어권 카나다인들의 거대한 압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불어권 카나다인들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개간하여 더 넓은 영지를 차지하는 것과 가능한 한 많은 자손을 두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들은 이러한 생활에 안주한 채, 바깥 세상의 변화에 무관심하게 되고 자녀 교육을 등한시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경멸하기에까지 이른다. 이러한 무지 속에서 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의식주의 해결과 늘어나는 가족수에만 만족하며 살아온 그들은 도시의 상권을 장악한 후 밀려오는 영국계 세력에 의하여 그들의 삶의 터전인 농지와 그들의 일터인 산림마저 침식당하게 된다.

펠릭스 앙뚜완 사바르 Félix-Antoine Savard가 1937년 『별목군 섭장 므노』를 발표할 때까지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이 소설의 이야기는 므노의 딸이 루이 에몽의 『마리아 샤프들렌』을 그의 아버지에게 읽어주는 대목으로 시작된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300년이 되었어.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살고 있어... 우리가 애만인이라고 놀리던 이방인들이 우리 주위에 몰려왔지! 그리고 그들은 권력과 금을 모두 차지했어... 그러나 퀘벡에는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어... (Savard, 1937)

눈 덮인 산 속에서 겨울을 나고, 봄이 오면 강이 있는 곳까지 별목해 놓은 나무들을 운반하는 작업이 별목공의 일이다. 한 평생 이 일을 해온 므노에게 그것은 천직으로 보였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그리고 그의 아들도 별목공이다. 그가 사는 거칠고 자갈밭으로 덮인 맹살 Mainsal 지방은 몇 해전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가 묻혀 있으며 또한 조상들의 뼈가 묻힌 유골함과 같은 곳이다. 므노는 이땅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소리를 듣는다.

해빙기 깊은 밤, 펫 속으로부터 울려오는 명령인 듯한 소리를, 땅 속으로부터 부르는 듯한 소리를 나는 듣는다 : “나는 너의 것이다! 나는 너의 것이다! 성스러운 유골함과도 같이 내

가 간직하고 있는 죽은 조상들의 권리에 따라! 300년 동안이나 나의 피부에 새겨져 내려온 모든 소유의 표지들에 따라! (Savard, 1937)

그러나 므노의 삶의 터전이며 정신적 고향인 시골이 외지인의 경제적 침투에 노출되면서 소설은 비극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한다. 『마리아 샤프들렌』의 행복한 결말과는 대조적으로, 농촌과 이 곳에 살던 개척민들의 삶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어두운 줄거리가 소설을 이끌어 간다. 같은 벌목공의 아들이며, 므노의 딸 마리의 청혼자인 텔리에는 영국 상인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을 배신하고, 소유권이 영국인에게 넘어간 므노의 땅의 관리인이 된다. 삶의 터전을 빼앗겨 버린 늙은 벌목공의 운명은 이때부터 광기어린 독백과 함께 파국으로 치닫는다. “우리는 죽을 줄 모르는 민족”이라는 신념이 그를 지탱 시켜주는 힘이라면, 그 반대편에서 “이방인들이 몰려왔어, 이방인들이 몰려왔어”라고 외치며 현실적 위기에 속수무책인 약자의 절규가 들린다. 그의 아들과 친구의 죽음, 자신의 광기 등으로 나타나는 개척민의 폐배는, 외세의 침략에 대한 한 경고라는 의미를 갖는다. 사실 므노의 발광은 땅을 지키며 살아온 농민들의 절규이며 경고이다.

『마리아 샤프들렌』과 『무노』는 15년의 격차를 두고 발간된 소설들이다. 전자가 현실과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시각에서 쓰여졌다면 후자의 현실 인식과 미래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들은 여러 관점에서 얘기될 수 있겠으나 먼저 사회 변동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본다. 이 소설 작품들에서 사회적 의미를 추출하고자 할 때, 이들의 출간 당시 퀘벡 사회의 경제 상황과 이데올로기의 변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두 문제는 사실상 맞물려 있으면서 이 소설들의 줄거리를 이끌어 가는 중심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퀘벡의 산업화는 ‘지방적’인 농업 중심의 문화에서 깨튼 퀘벡인들의 일반적 정서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20세기의 시작을 전후해서 퀘벡 사회는 농업 중심 사회에서 공업 중심의 산업 체제로 변화하고 있었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경공업이 발전하면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퀘벡인들의 정신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업사회적 전통과 가치관은 계속 남아 있었다. 교회나 민족주의적 지식인 등 보수 세력은 농업사회적 전통을 신비화시킴으로써 프랑스계 카나다인들의 문화적인 동질성을 유지하기에 힘썼다. 이리하여 20세기 초와 중반까지 퀘벡 사회는 지속적인 정치적, 문화적 보수주의와 산업화라는 어울리기 힘든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여 간다. 특히 산업화의 움직임이 주로 퀘벡의 외부, 혹은 퀘벡 내부의 영국계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이에 대한 문화적 저항은 더욱 극단적인 양식으로 드러나게 된다. 타율적 힘에 의해 진행된 산업화와 함께 퀘벡의 전통적 생활 양식은 극심한 변화를 겪게 되고, 점차 그들의 삶의 터전이 강자의 경제 논리 속에 흡수되면서 집단적 위기감이 조성된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다 정치인들의 보수주의적 정책이 가미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된다. 1936-1939, 1949-1959년까지, 다시 말해 ‘조용한 혁명’ 직전까지, 광범위한 농민총파 이들을 지도하는 성직자 계층을 지지 기반으로 삼아 집권한 뒤플레시스 Duplessis 정권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농민들의 ‘상식’, 다시

말해 산업화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수구적 농민들의 일반적 정서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여기에다 퀘벡의 자율성, 특히 문화적 자율성을 보존하는 데 주력하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착오적인 이러한 보수주의는 산업화 이전의 퀘벡을 신비화시키고 그러한 사회의 가치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이리하여 문화(이념, 가치)와 사회 현실(기술, 경제, 도시화, 산업화)사이의 크나큰 괴리는 커다란 집단적 문제를 야기시켰고, 이에 대한 문화적 대응이 바로 『모노』와 같은 작품인 것이다. 산업화의 과급 효과가 퀘벡 전통 사회의 심부까지 파고 들면서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의식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삶의 형식과 문화적 자율성을 보존하려는 농촌 사회의 저항이 바로 이 소설 줄거리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조용한 혁명’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러나 당시의 소설이 모두 『마리아 샤프들렌』이나 『모노』에서처럼 선량하고 덕성스런 인물들을 작품의 중심에 둔다거나 보수주의적 이념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만을 보여 준 것은 아니다. 일군의 소설가들은 그들의 사회를 활싼 더 비평적인 시선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으며, 더 많은 사실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들을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현실을 미화하고 전원적인 색채 속에 묻어 버리는 기존의 작품에 반대하여 전원적인 삶의 어려움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고자 하였다. 알베르 라베르쥐 Albert Laberge가 1918년에 출간한 『라 스쿠인 La Secouine』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 시골 가족의 음울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작품에서 라베르쥐는, 졸라 및 프랑스 자연주의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천박하고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비열하고 잔인하며 이기주의적인 인물들을 등장시킨다. 향토 소설에서 흔히 등장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시골의 일꾼들은 이 소설 속에서 찾아 보기 힘들다. 작품 속에 이처럼 부정적 인물이 등장하거나 전원적 삶의 고통스러움이 부각되는 것은, 작가가 퀘벡 사회의 경직된 전통주의와 환원주의적 보수주의에 대항해서 정신적인 수동성과 타율적 삶으로부터 퀘벡인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 작품은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심화되기 시작한 퀘벡인들의 전통적 생활 양식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지배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지 않은 입장에서 소설화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농촌이 더 이상 낙원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작품은 『모노』보다 20여년 앞서 보여주었던 것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퀘벡의 농촌 사회를 변화시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1921년에 이미 도시 인구는 농촌 인구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농촌을 떠난 퀘벡인들은 도시의 범두리 빈민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게 되었고, 이들의 삶은 공간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사회 경제적 억압 구조 속에서 동일한 운명을 짊어지게 된다. 가브리엘 로와 Gabrielle Roy는 1945년에 발간한 『우연한 행복 Bonheur d'occasion』에서 몽레알의 빈민 지역 생·앙리 St.-Henri 가에서 벌어지는 가난한 사람들의 힘겨운 삶을 보여주었다. 섬세한 심리 묘사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생생하게 묘사한 것으로 유명한 이 소설에서 작가는 빈민가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전통적인 퀘벡 가정의 모습과 빈부의 격차와 같은 사회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다.

소설은 몽레알의 가장 가난한 지역인 생·앙리 가를 배경으로 전개된다.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이 이야기는 시골에서 아주한 라카스 가문이 영어계의 경제적

지배 하에 있던 대도시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레스토랑의 여금인 플로랑틴느 라카스는 장래 엔지니어를 꿈꾸는 야심 많은 고아 출신 젊은이 장 레 베크에 반한다. 장은 플로랑틴느에 대해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에게 플로랑틴느의 존재는 자기의 가난했던 유년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기 아이를 가졌을 때 그는 그녀를 버린다. 플로랑틴느는 장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장의 옛 친구인 에마뉘엘 레뚜르노를 만난다. 그는 군에 입대하여 유럽으로 떠나기 전에 플로랑틴느와 결혼한다. 그러나 가브리엘 르와의 진정한 주제는 라카스 가문이 가난과 싸우는 이야기이다. 실직중인 아버지 아자리우스는 정치나 국제 문제에 열광하는 낭만적인 몽상가이다. 자기 가족들에 대한 애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 그는 마침내 그의 아들 외젠느처럼 카나다 군대에 입대한다. 그것은 그의 아내 로즈-안나에게 보조금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가족에 대한 충실히과 헌신으로 가족의 봉괴를 막고,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그녀는 어린 아들 다니엘이 아무도 불어를 쓰지 않는 영어계 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서서히 숨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유년을 보냈던 시골을 그리워 한다. 작가 가브리엘 르와는 정확하게 그리고 동정심을 가지고 생-앙리 가에 우글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관찰하였다. 이 지역은 경제 공황 시기에 특히 타격을 입은 곳이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은 절망에 빠져들거나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사건들 앞에서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가난과 실직의 덫에 걸린 모든 사람들은 모든 물질적 근심에서 해방된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된다.

11명의 자식을 낳아 기르며 불평 없이 살아가는 로즈-안나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라카스父子, 그리고 빈곤에도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플로랑틴느 같은 인물은 모두 20세기 중반 퀘벡의 경제 위기를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퀘벡인의 모습이다. 이들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모든 물질적 근심에서 해방된 삶,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이 생겨나고, 그것은 물질적인 해방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해방을 꿈꾸는 집단적 열망으로 발전한다. 이런 의미에서, “낮게 내려 앉은 검은 구름이 천둥과 비바람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소설의 결어는 퀘벡사회에 일대 변혁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5년 후에 그것은 ‘조용한 혁명’ 이란 모습으로 퀘벡인들에게 다가오게 된다.

(2) ‘조용한 혁명’을 전후한 퀘벡 소설의 변모와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

1960년부터 66년 사이에 진행된 ‘조용한 혁명 Révolution tranquille’은 갑작스럽게 찾았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 보았던 퀘벡의 근·현대사나 문학 작품 속에서 나타나듯이, 퀘벡인들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질곡 속에 처해 있게 했던 제반 난관들을 타파하려는 집단적 열망으로부터 서서히 준비되고 탄생한 것이다. 좀은 의미에서의 조용한 혁명은 흔히 장 르사쥬 Jean Lesage의 자유당 정부가 1960년에서 1966년 사이에 실시한 정치적, 제도적, 사회적인 개혁을 말한다. 퀘벡의 정치 지도자들은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개념에 입각해서 국가 기구와 교육, 의료, 사회복지 제도

등에 대한 근본적 개혁에 착수했다. 사회 전체에 급속히 확산된 비교권주의에 힘입어 개혁의 속도는 빨라졌으며, 오래 전부터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이 완결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농업과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자본집약적, 지식집약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퀘벡의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강화되었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짐으로써 복지국가를 향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조용한 혁명은 이러한 물질적 개혁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정신적, 문화적 차원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써 퀘벡 사회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조용한 혁명’은 국민의 상상력과 민족적 자부심을 진작시키면서 자신들과 그들이 속한 사회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정의하게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조용한 혁명’은 ‘순수한 혁명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정신의 해방이며, 사물과 인간에 대한 비평적 태도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퀘벡인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치 부여를 가능케 했고, 열어 있던 독립 정신과 탐구 정신을 새롭게 일깨워주게 된다. 퀘벡 주민들은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면서 당시까지 그들을 지배해 온 숙명론을 떨쳐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퀘벡인과 퀘벡 사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지으려는 집단의 열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차 대전이 끝난 무렵부터 조용한 혁명이 일단락되는 1965년까지 발간된 퀘벡의 소설들에서는 집단적 소외 의식이 심화되고 해방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 시기의 퀘벡 소설은 타자의 위협적 출현과 사회·경제적 지배를 확인하는 단계에서부터, 전통적 이데올로기를 문제삼아 가치의 위기를 내면화시키는 단계를 거치고는, 불어권 카나다인의 상황을 식민주의 colonialisme와의 관련 하에서 설명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을 비판하기에 이른다. 이 마지막 단계의 소설을 흔히 비판 소설 roman de contestation 이라 한다. 이 소설은 역사의 실체를 확인하고 국가의 부재를 통탄하며 그것을 식민지적 상황 탓으로 돌리고 있다. 비판 소설은 부정적 차원에서 소외를 극복하고, 긍정적 차원에서 해방을 호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하여 이 소설들은 마침내 프랑스계 카나다인의 죽음을 선언하고 퀘벡인의 탄생을 촉구하게 된다.

‘조용한 혁명’ 전까지 퀘벡 사회를 연구하는 관점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민족주의적인 관점이 주류를 이룬다. 퀘벡 사회의 문제점은 이 관점 하에서 설명되었고, 이 관점으로 설명될 수 없는 많은 부분은 은폐되거나 혹은 커다란 민족주의적 견해 속에 묻혀 빛을 보지 못했다. 가령 퀘벡 사회 내에 존재하는 빈부의 불균형 같은 문제가 그러하다. ‘조용한 혁명’의 시기에는 퀘벡 사회의 문제를 식민지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파악함으로써 민족주의적인 관점과 사회적 관점이 합치될 수 있었다. 프랑스계 카나다인은 이제 식민지적 상황에서 지배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조용한 혁명’기에 주목할 만한 문학적 상황으로서는 우선 1963년 가을에 창간된 잡지 『방침 Parti pris』를 들 수 있다. 혁명적이고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성격의 이 잡지는 정교분리주의와 사회주의와 퀘벡의 독립을 동등한 비중으로 중진하기 위해 활동한다. 『방침』은 특히 퀘벡에서의 식민화의 제 양상을 주제로 두 번의 특집호를 내기도 하였

다. 1966년 앙드레 달르만뉴 André d'Allemagne는 『퀘벡에서의 식민주의 *Le Colonialisme au Québec*』를 발간한다. 『방침 *Parti pris*』에서는 1968, 69년에 걸쳐 피에르 발리에르 Pierre Vallières의 작품 『아메리카의 백색 니그로 *Nègres blancs d'Amérique*』를 발행하였다. 제라르 베르쥐롱 Gérard Bergeron은 『200백년의 인내 끝의 프랑스계 카나다 *Le Canada-Français après deux siècles de patience*』란 책에서 퀘벡의 상황을 주저없이 식민주의와 지배라는 관점에서 다루었다. 마르셀 리우 Marcel Rioux, 기로셰 Guy Rocher, 그밖의 많은 사람들이 이 관점에 동의하였다. 가령 장-마르크 레제르 Jean-Marc Léger는 퀘벡의 신민족주의 néo-nationalisme를 ‘다르게는 탈식민화 *décolonialisation*라 불리우는 것’과 부합한다고 생각했다.

현실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새로운 의식의 탄생을 증언하는 것이었다. 문화의 비극적 결여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식민지적 상황과 유사한 지배에 대한 인식으로의 길이 열린다. 1960년에서 1965년 사이의 대부분의 소설은 정체성의 추구를 통하여 드러난 문화적 위기를 다양한 수준에서 표현하였다. 문학 비평가들은 이 시기에 있었던 소설 생산의 양적 확대를 표현하기 위해 ‘폭발, 파열, 비등’과 같은 역동적 어휘를 쓰고 있다. 소설은 양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소설 형식의 면에서 누보로망적 기법을 시도하거나 ‘주얼 *joual*’어를 도입하거나 주제면에서도 다양한 내용을 다루게 되므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배경에 있어서도 퀘벡을 벗어나 국제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소설도 있었다. 소설의 이러한 다양한 충위에서의 변모를 통해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두가 기존의 어떤 소설, 어떤 사회, 어떤 삶, 그리고 어떤 공간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 혁신은 기존의 낡은 이미지들과 모든 이념들을 격렬하게 뒤흔들어 놓은 퀘벡 소설 속에 각인되어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비판 문학 즉, 예술과 사회 현실에 대한 관점의 깊은 변화를 표현한 1960-65년 사이의 소설은 마땅히 고려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이 소설들은 퀘벡 문학의 진정한 탈바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새로운 퀘벡 문학은 “기존의 퀘벡인의 숙명적 조건을 분쇄한다. 새로운 문학은 아직도 퀘벡인을 유혹하는 너무도 신화적인 모습을 해체한다.”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문학은 새로운 인간, 즉,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경험과 역사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인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 관점의 변화는 사실주의적 전통의 소설들, 이를테면 『에마뉘엘의 삶의 한 때 *Une saison dans la vie d'Emmanuel*』, 『파손지 *Le Cassé*』, 『제르멘느여 울지마라 *Pleure pas, Germaine*』, 『에텔과 테러리스트 *Ethel et le terroriste*』, 『아쉬니 *Ashini*』에 나타난다. 그러나 가능성 있는 미래를 실제로 제시해주었던 것은, 미학적 전통 속에서 생산된 소설들 즉, 『다음의 에피소드 *Prochain Episode*』, 『탁자 위의 칼 *Le Couteau sur la table*』, 『비인간적인 도시 *La ville inhumaine*』같은 작품이다.

이 비판 소설들은 집단의 얼굴을 재창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프랑스계 카나다인이라는 전통적 표상을 부인하는 현실과 규정은 현재 창조되고 있는 종이고 이 소설들은 바로 그것을 형상화하려고 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주인공이 부딪치는 난관도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가 물려받은 자신에 대한 정의는 현실에 부합

되지 않으며, 자신을 인식하는 데 결림돌이 될 뿐이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덜 레며 즉, 과거의 정의를 버릴 것인가 혹은 현실을 벗어나 있을 것인가 중 하나를 선택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두 번째의 난관은, 집단적 병리 현상과 결부된 문화적 공백 상태이다. 이러한 공백은 자신의 탐구를 인도해 줄 풋말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그리하여 소수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주인공은 자신의 상황으로부터 탈출할 출구를 발견 하지 못한다. 그가 마침내, 현실과 동떨어진 표상이 아니라 현실 자체와의 관련 하에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는 것은, 새로운 관점 즉, 지배와 식민화라는 관점에 설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60년대에 주류를 이루었던 비판 소설은 이처럼 새로운 인간 즉, 퀘벡인을 규정짓는 데 주력하였다. 당시 소설의 경향을 한 비평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시기의 가장 의미있는 소설들은 현실을 기술한다거나 현실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프랑스계 카나다인의 위상을 설정하고 그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달리 말해서, 소설가들은 정체성을 추구하는 도정에 있었고, 이러한 도정은 다양한 차원으로 드러났다.(Kattan, 1967 : 78)

정체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바로 스스로를 설명한다는 것이고 스스로에게 자신의 역사 의식을 밝히는 임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클로드 자스멩 Claude Jasmin은 이러한 문제를 가장 명료하게 기술한 소설가들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소설 『애텔과 테리스트』에 등장하는 테리스트 폴이나 『제르멘느여 울지마라』에 나오는 생-켕탱 Saint-Quentin의 철학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문한다.

내일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리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Jasmin, 1964 : 121)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조약돌을 하나 집어들고 물에 던지면서 외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Jasmin, 1965 : 25-26)

『비인간적인 도시』, 『탁자 위의 칼』, 『다음의 에피소드』에서 화자로 하여금 정체성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관점이다. 세 작품의 화자는 모두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겪는다. 화자에게 선택의 대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양립하기 힘든 것들이다. 가령 『탁자 위의 칼』에서 화자는 마들렌느와 파트리샤와의 관계 속에 위치한다. 마들렌느는 그녀의 종교, 언어, 사회적 위상, 꿈 그리고 그녀의 무력함으로 전통적인 프랑스계 카나다를 재현하고 있다. 화자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것이기도 한 '정복된 나라'를 느낀다. 영국계 카나다인인 파트리사는 영어권 카나다를 표상한다. 더 나아가서는 아메리카와 그 문명 전체를 나타내며 화자는 수없이 그 속에 잠겨들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파트리샤는 다소 겹치레요, 출부들의 세계이며 영어를 쓰는 크룹이다. 모조품. 파르테는 신전에 만큼이나 자동차 박물관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아메리카 종족, 영국계 칸나다인들인 것이다... 파트리샤는 나의 약점이고, 나의 늙이며, 내가 그것을 통해 나를 둘러싼 1억 9천만 인들과 육체적 접촉을 갖게 하는 수단이다. (Godbout, 1965 : 9)

화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세계를 다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에 고통스러워 한다.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함을 의미한다. 화자는 스스로를 규정짓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의 모호성을 인식하게 된다. 선택의 어려움을 인식하면서 화자가 부딪치게 되는 중요한 장애물은 정체성의 근원인 문화가 그에게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혼란과 불일치가 나오며 그것들은 작품에 산재해 있다. 주인공의 의식은 '문화적 소외'에 의해 뒤죽박죽이 된다. 앙리 아퀴ن Henri Aquin, 샤크 고드부 Jacques Godbout, 로랑 지루아르 Laurent Girouard가 환기시키는 것은 바로 이 문화적 공백인 것이다. 이 문화적 결여 혹은 '문화적 파산'의 느낌은 주인공들의 의식을 통해 표면으로 떠오른 집단적 의식, 집단적 병리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소외감과 더불어 이 시기의 많은 소설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는 소수자의 콤플렉스이다. 『아쉬니』에서는 몽타네 Montagnais라는 소수 집단의 자의적인 몰락을 보여줌으로써, 우의적으로, 아메리카 불어권에 가해지는 위협을 경고하고 있다. 『비 인간적인 도시』에서는 소수자 콤플렉스와 관련된 무력감이 에밀 드롤레의 대화를 통해 표출된다. 그는 아메리카에 사는 불어권이란 조건으로부터 오는 존재의 부조리에 낙담하고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기를 거부한다.

만일 내가 북아메리카에 사는 프랑스인만 아니라면 필경 이 밤에, 미래의 낙원을 보장한다 거짓말에 항의하는 조합회의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흑인 맥시스트가 될 수는 없어. 너는 그것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파멸이야. (Girouard, 1964 : 152-153)

또한 화자나 주인공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다른 소수 집단들과 자신들을 비교하기도 한다. 그것은 소수 집단들과의 연대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열등 의식을 극복하려는 욕망의 표현이다. 1960년대의 소설들에는 유태계 출신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소설적 기능은 명백히 정체성의 확인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한 점을 한 비평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프랑스계 칸나다 소설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함으로써 지평을 넓히려 한다. 그가 유태계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수자로서의 위상을 위협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유태인은 수 세기에 걸쳐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할 줄 알았다. 그것은 확실한 예가 된다. (Kattan, 1967 : 79)

당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유태인은 마치 상징이나 거울처럼, 정체성을 추구하는 도정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다. 그 도정은 불어권 칸나다인의 조건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

는 것이다.

『우연한 행복 Bonheur d'occasion』 같은 도시 풍속 소설이 경제적 지배를 관찰한 것이라면, 60년대에 주류를 이루었던 비판 소설들은 그 경제적 지배의 문화적, 역사적 결과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비판 소설은 지배와 식민주의의 정체를 밝히고, 주인공은 자신이 역사의 밖에 위치해 있음을 인식한다. 그는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진정한 나라를 박탈당한 존재임을 인식한다. 『다음의 에피소드』의 화자는 “식민지화되지 않은 나라에서 살게 된다면”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현실을 은폐하는 환상과 나라를 박탈당한 느낌을 토로한다.

나는 다른 인간들이 스스로 우월한 종족이라 믿으며 착각하기를 즐기는 국경 없는 나라에서 살아왔다. (Aquin, 1965 : 162)

『탁자 위의 칼』에서 정체성을 상실하였다고 느끼는 화자는 지배의 결과인 문화적 소외를 힘주어 강조한다.

사생아들, 역사상 유래가 없는 서자들! 벨기에인들도 같은 문제로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들은 새 옷을 갈아 입을 수 있었다. 진정한 사생아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다. (Godbout, 1965 : 162)

소설 속에서 과거의 어떤 역사가 버려지고, 어떤 현실 다시 말해 프롤레타리아의 현실 그리고 피식민자의 현실에 부합하는 이미지가 주인공에게 부여되었을 때 비로소 소외가 진정으로 인식된다. 이렇듯 프랑스계 카나다인이라는 신화가 무너졌을 때 마침내 케베인의 탄생이라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비판 소설의 탈신비화 작업은 새로운 시작을 부른다. 그것은 과거의 신화를 파괴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신화를 창조한다. 이때 소설은 새로운 세계와 문화의 재현 현상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현상은 탈식민지화의 과정과 유사하다. 프란츠 파농 Frantz Fanon에 따르면 이 탈식민지화야말로 ‘새로운 인간의 진정한 탄생’과 같은 것이다. 비판 소설이 요구하는 세계의 쇄신은 기원으로의 회귀 신화를 환기함으로써, 혹은 창조 이전의 카오스를 환기함으로써 표현된다.

한 세계의 종말 - 식민화의 종말 -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는 기원으로의 회귀를 전제 한다. 메시아적 인물은 문화의 영웅이나 사람들이 그 도래를 기다리는 신화적 조상과 동일시 된다. 그들의 도래는 기원의 신화적 시간 즉, 세계의 재창조와 같은 것이 된다. 식민지인들이 추진한 수천 년 간의 운동들이 요구하는 문화적 자유와 정치적 독립은 근원적인 지복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결국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낡은 세계는 상징적으로 사라지고 근원의 낙원같은 세계가 그 자리에 들어선다. (Eliade, 1963 : 91)

『탁자 위의 칼』에서 세계의 재창조 신화가 형상화되는 것은 깨잘꼬아뜰 Quetzal-coatl

의 신화를 통해서이다. 께찰꼬아틀 Quetzalcoatl은 성스러운 새이고 자유의 상징이다. 왜냐하면 이 새는 불잡힌 상태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새는 아즈텍인들에 있어서 문명의 신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이 새의 부름을 듣게 된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지혜를 신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세계의 중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끔 하는 부름이다.

『비인간적인 도시』에도 선조들의 이야기가 실현되고 약속의 골짜기를 되찾기 위해서 파괴해야 할 세계가 있다.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낡은 사람을 제거해야 한다.

프랑스계 카나다인을 살해함으로써 새로운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새로운 인간? 그렇다. 그는 바로 퀘벡인인 것이다. (Girouard, 1964 : 8)

새로운 삶은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이때 혁명이란 식민적 관계의 지옥 같은 범주를 부수는 절대적 단절을 의미한다. 그것만이 식민적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출구이고, 식민지 국민들이 자신들을 배제시켰던 역사를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다음의 에피소드』의 화자가 시도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혁명전쟁이 시작되는 불확실한 순간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의 역사는, 나를 부수고 내가 제대로 봉사하지 못했던 혁명의 피 속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우리는 비로소 세계 속에 등장하게 되리라. (Aquin, 1965 : 94)

『탁자 위의 칼』과 『비인간적인 도시』에서는 퀘벡 인민전선의 활동이 형상화되는데, 이 소설의 화자들은 혁명의 시기를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혁명이란 반드시 무장혁명을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갑작스럽고 격렬한 변화를 뜻한다. 이 변화는, 비록 이것이 타자를 상징적으로 해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 기존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마치 불사조처럼 프랑스계 카나다 작가는 스스로를 파괴한다. 그 파괴의 잔해로부터 어느 때보다도 강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그는 마침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음을 믿는 것이다. 만일 그가 프랑스계 카나다인의 정체성, 다시 말해 그에게 명백한 패배의 결과만을 상기시키는 무기력한 역사의 무거운 정체성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희망에 넘치고 앞으로 그가 기꺼이 떠맡기를 바라는 정체성 즉, 퀘벡인의 정체성을 더욱 잘 승인하기 위해서이다. (Cotnam, 293)

이처럼 프랑스계 카나다인의 죽음은 퀘벡인의 탄생을 가능케 했다. 퀘벡인은 이제 내적, 외적 소외로 점철된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

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별목군 십장, 므노』에서 『다음의 에피소드』에 이르기까지 케베인들의 오래된 소외를 점차 명료히 인식하는 단계를 형상화하였고 해방의 지표들을 드러내었다. 『민노』에 있어서는 소외된 자와 혁명가 사이의 투쟁이 극단적 소외의 형태인 광기로 빠져들었다. 구세대의 의식을 가진 사람인 므노는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을 지탱할 수 없었다. 『다음의 에피소드』에서의 혁명가도 므노처럼 소외에 대한 인식과 단절의 필요성에 의해 고통받는다. 그러나 펠릭스 양뚱완 사바르 Félix-Antoine Savard와는 달리 위베르 아퀘 Hubert Aquin은 자신의 이야기에 종지부를 찍기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프랑스계 카나다인의 신화가 므노와 함께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다음의 에피소드』의 혁명적 화자는, 케베인은 역사의 산물이어야 하지 문학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IV. 결 론

예전부터 케베인들을 괴롭혀 온 하나의 특별한 문제, 특히 30년 전부터는 쓰디쓰게 그들의 강박관념이 되어버린 문제는, 한 국가로서 그리고 한 민족이나 개인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케베인들이 역사의 다양한 국면들을 겪어오면서 그 문제에 관해 서로 토론하거나, 그것을 그들의 주요 관심사로 상정하는 것조차 거북해했던 것은, 그 문제가 어떤 만족스럽거나 최종적인 타결책을 갖기 힘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베인들은, 우리들은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떤 영향들을 받았으며 어떻게 변화했는가, 우리의 운명은 무엇이며,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고, 우리의 현재는 어떠하며, 미래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내면화하면서 자신들의 집단적 혹은 개인적 정체성의 문제에 일련의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이처럼 케베인의 역사는 적어도 문화사적인 면에서 볼 때 정체성 획득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케베인의 문학 작품들 속에 다양하게 표현된 공통된 집단적 열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케베인들은 계속해서 누벨 프랑스의 거주민들로서, 카나다인으로서, 프랑스계 카나다인으로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케베인 혹은 아메리카 불어권인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된다. 역사의 매 단계마다 케베인 사회의 제반 여건들과 케베인들의 집단적 열망, 꿈 등에 의해 형성된 이러한 정체성의 표현들은 일종의 신화적 양상을 띠면서 케베인들과 케베인 사회를 움직여 온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왔다. 그 신화적 양상의 변화 방향은, 케베인 사회가 영어권 문화와 구별되고 동시에 프랑스 문화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이고 독특한 케베인 문화를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은 케베인들이 자신들의 문화가 일종의 문화적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뼈아픈 각성과 함께 이루어졌다. 문화적 측면에서 케베인 사회의 탈식민화 과정은 프랑스계 카나다인이라는 과거의 신화가 무너지고, 거기에 케베인 혹은 아메리카 불어권인이라는 새로운 신화가 성립되는 과정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 내용들은 문학작품들 속에서 일련의 신

화적 표현들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일 예가 앞서 『탁자위의 칼』의 깨깔꼬 아뜰 신화에서 언급한 바 있는 기원으로의 회기 신화, 달리 말해 세계의 재창조 신화인 것이다. 엘리아데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식민지인들이 요구하는 문화적 자유와 정치적 독립은 신화적 차원에서 보자면 균원적인 지복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결국 퀘벡인들이 추구해온 탈식민화 과정은 '새로운 인간의 진정한 탄생'이라는 정체성 획득의 과정과 일치하면서, 억압적인 낡은 세계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균원의 낙원같은 세계를 건설하려는 집단적 열망의 표현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퀘벡인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주알어 joual'이다. 주알어가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조명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적 독창성의 현재와 미래를 인식하고 예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퀘벡의 문화적 독창성과 퀘벡인의 정체성의 문제를 다양한 충위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주알어를 간략하게 검토하면서 이 글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퀘벡인들이 추구해온 탈식민화 과정은 이중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같은 카나다 내의 영어문화권과의 관계가 그 하나이고 구대륙의 프랑스 문화와의 관계가 다른 하나이다. 동일한 정치적 제도권 내에서 소수 그룹에 속한 민족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보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첫번째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두번째 측면에서는, 역사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는 전통을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독자적 형태로 변용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주알어의 성립은 이 두 문제에 공통의 출구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알어는 퀘벡의 도시화, 근대화 과정이나 영어권과의 접촉 등 제반 사회상황들 속에서 탄생한 사회언어학적 현상이다. 동시에 이 언어적 상태는 퀘벡의 여러 사회 문제들, 특히 다양한 차원에 소외의 문제들과 그 소외 상태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반응들을 함축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차원에서 주알어는 이중의 의미를 갖는다. 궁정적 의미에서 주알어는 퀘벡인들이 자신들의 결합들을 포함하여 자신을 궁정하는 징표가 된다. 일예로 문학에서 주알어를 도입한 것은 자신들의 현실을 시인하면서 그 현실을 전적으로 감싸안는 태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부정적 측면에서 주알어는 경제적 피지배 상태로부터 비롯된 문화적 소외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언어적 결핍은 단지 이데올로기적이거나 문화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경제적 혹은 정치적 지배는 문화적 지배를 창출한다. 그리고 문화적 지배는 거꾸로 경제적, 정치적 지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주알어는 너무 오래 지속된 문화적 식민지 상태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주알어는 원래 대부분의 간부들이 영어권 주민들로 구성된 도시의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불어권 주민들이 사용하는 수준의 언어였다. 이 언어가 퀘벡인의 정체성의 궁정적인 상징이 되기 시작한 것은 지식인과 작가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표현수단으로 채택하면서부터이다. 진정한 민중에 의해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 절망한 지식인과 작가들은 바로 민중의 언어인 주알어를 자신들의 언어로 받아들이게 된다. 폴 샹베를랑 Paul Chamberlan은 진흙과 같은 언어인 주알어를 문학언어의 재료로 삼아

魁베인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극작가 미셸 트랑블레 Michel Tremblet는 주알어로 『자매들』을 써서 일약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된다. 처음에는 주알어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던 가스통 미롱 Gaston Miron도 나중에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빈약한 말들’, ‘우리 인내의 뼈마디 굽은 그 말들’에 의존하게 되며, 그 말들을 방언이 아니라 문학 언어의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리하여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임을魁베인들은 깨닫게 되며, ‘병든 언어’로라도 자신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압제받는 언어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언어를 보호하고 자신의 것으로 용인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魁베인이 탄생하는 것이다. 결국 프랑스 문화와도 다르고, 미국식 문화와도 구별되는魁베의 독자적 문화가 어느 만큼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魁베인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주알어의 성패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Aquin

1965 Hubert, *Prochain épisode*, Montréal, Cercle du Livre de France.

1982 *Blocs erratiques*, Quinze, Montréal.

Ballantyne, Murray

1962 “What French Canadians Have Against US”, *Canada : expérience réussie ou ratée*, Quebec, Press de l'université Laval.

Beaudoin, Réjean

1989 *Naissance d'une littérature*, Boréal.

Crémazie

1897 *Oeuvres complètes d'Octave Crémazie*, Ed, Beauchemin, 3^e éd.

Dion Léon

1987 *A la Recherche du Québec*, tome I,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Eliade, Mircea

1963 *Aspects du mythe*, Paris, Gallimars.

Gagnon, Alain

1992 “La Constitution du Canada et la situation politique”, 『불어문화권 연구』 제 2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문화권 연구소.

Girouard, Laurent

1964 *La Ville inhumaine*, Montréal, Parti pris.

Godbout, Jacques

1965 *Le Couteau sur la table*, Paris, Seuil,

Hamblet, Edwin

1987 *La Litterature Canadienne francophone*, Hatier, Paris.

Heimlich, Evan

1994 "Kerouac's Poems, *Joual*, and North America's Multicultural Sounds", in *Postcolonial Perspectives*, State University od New York, Buffalo.

Hémon, Louis

1924 *Maria Chapedelaine*, Paris, Grasset.

Jasmin, Claude

1965 *Ethel et le terroriste*, Montréal, Librairie Déon, 1964, *Pleure pas, Germaine*, Montréal, Editions Parti pris.

Kattan, Naim

1967 "Canada: une littérature d'interrogation", dans *Preuves* (Paris), mars.

Klinkenberg, Jean-Marie

1991 "프랑스 밖의 불어 Le Francais hors de France", 『불어문화권 연구』 창간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문화권 연구소.

Lacroix, Jean-Michael

1992 "Le Pluri-éthnisme canadien-Au delà de la fusion et de la confusion", 『불어문화권 연구』 제 2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문화권연구소.

Lalonde, Michèle

1974 *Speak white, poème-affiche*, L'Hexagone.

Larose, Jean

1981 *Le Mythe de Nelligan*, Quinze/Prose exacte.

Marthy, Jean-Phillippe

1993 *Extrême-Occident*, Univ.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Miron, Gaston

1967 *L'Homme rapaillé*, Montréal,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1970., Notre société et son roman, Montréal, HMH.

Morin Michel et Claude Bertrand

1977 *Le territoire imaginaire de la culture*, Brèches, Montréal.

Nelligan, Emile

1952 *Oeuvres complètes, 1896-1899*, 3^e éd., Montréal, Ed. Fides.

Rocher, Guy

1979 "Le Québécois, un certain homme nord-américain", in *Dossier Québec*(direction de Jean Sarasin), Montréal, Stock.

Rousseau, Guild

1981 *L'image des Etats unis dans la littérature québécoise (1775-1930)*, Sherbrooke, Naaman.

Royer, Jean

1987 *La Poésie québécoise contemporaine* (Anthologie), l'Hexagone.

Saint-Demys-Garneau, Hector de

1972 *Poésies complètes*, 2^e éd. Montréal, Ed. Fides.

Savard, Félix-Antoine

1937 *Menaud, maître-draveur*, Quebec, Garneau.

Shell, Marc

1993 *Children of the Earth : Literature Politics and nationhood*, Oxford Univ. Press.

Taylor, Charles

1982 *Radical Tories*, Toronto, Anansi.

Tétu de Labsade, Francoise

1993 “자기 동일성의 단장들, Fragments d'identité”, 『불어문화권 연구』 제 3집, 서울 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문화권 연구소.

1989 *Le Québec: un pays, une culture*, Boréal/Seuil.

Vallières, Pierre

1967 *Nègres blancs d'Amérique*, Montréal, Parti pris.

김지하

1993 “환경과 풀뿌리 민주주의”, 『모로 누운 돌부처』, 나남문학선.

원윤수

1994 「캐나다 퀘벡과 그 언어」, 『프랑스 문화권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Étude sur la nouveauté culturelle du Québec francophone.

Pyung-Kun Yu and Whan Lee

L'immigration du peuple francophone au Québec, commencée à l'époque des grandes découvertes par la colonisation française au 16^e siècle a produit le Québec, une société francophone. Durant le processus d'établissement de son identité culturelle propre, cette société a dû subir des difficultés causées par la défaite française pendant la guerre de colonisation entre la France et l'Angleterre.

Les québécois francophones devenus ‘colons colonisés’ ont été non seulement exposés à des menaces constantes d'assimilation au monde anglophone mais aussi ont eu conscience d'être des ‘conquistadors conquis’. Néanmoins, ils ont considéré le français, leur langue, comme le moyen de s'identifier, d'avoir une identité. C'est pourquoi ils se sont continuellement efforcés de protéger leur langue maternelle. Cet effort volontaire

a été concrétisé à partir de la fin des années 1960 à travers du mouvement de réforme des mentalités qui s'est développé au Québec, 'la révolution tranquille'. Ce mouvement a permis de dépasser le dualisme des langues, en insistant sur le monolinguisme et l'utilisation exclusive du français.

Les québécois catholiques francophones étaient entourés par des anglophones protestants et ils étaient isolés sur le plan du langage. Cela a retardé l'évolution diachronique du français dans cette région. Il se trouve que le français québécois a des caractéristiques spécifiques lexicales et phonétiques, différentes de celles du français français et le dialecte appelé 'le joual' vient de ce français québécois. Mais on remarque souvent que cette différence régionale et pragmatique fait que le français québécois est considéré souvent comme simples d'erreurs.

L'ambivalence du sentiment des québécois envers les Américains vient de leur désir de les voir disparaître et à la fois de leur admiration pour eux. Malgré ce double état d'esprit, les canadiens français n'ont pas une attitude de confrontation avec eux au lieu d'exprimer leur sentiment de répugnance ou d'avoir une attitude défensive.

De la condition géographique du Québec entouré de régions anglophones naît l'idée de séparatisme et ce mouvement peut être considéré comme positif en tant que tentative de se libérer de la domination inévitable par le sentiment national. D'autre part, la coexistence et le système coopératif des deux groupes hétérogènes du Canada actuel est une preuve qui montre qu'il existe un exemple réussi de multiculturalisme possible qui la planète.

A notre époque à l'on passe des informations à la créativité, le Québec doit dépasser les limites de la culture américaine ou anglophone avec sa culture folklorique et de base, pour essayer d'accomplir une accumulation de culture et pour établir son identité et une originalité culturelles propres. Pour cela le rôle des artistes et des hommes de lettres aura plus d'importance que d'autres éléments matériels.

유평근, 서울대 인문대 불문학과 교수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Tel : 880-6117(O), 557-7362(H) Fax : 886-4076

이 환, 서울대 인문대 불문학과 교수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Tel : 880-6118(O), 557-7362(H) Fax : 886-4076